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VOL. 367
8월 AUGUST 2021



약사천 물터널



〈지암리 계곡〉 명예시민사진기자 **하성재**

M E E T

봄내를 만나다

04 **춘천은 지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06 지속가능 도시 ⑧

08 **생활뉴스**

외출 어려운 어르신 동행지원서비스 '호응' 외 15건

1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확대**



04

H U G

봄내를 품다

13 **춘천 시간여행** 41년 전 청춘, 뜨거워진 눈시울

14 **이병한의 생명살림도시 ⑧** 춘천부터 원산까지

16 **허준구의 춘천100경 ⑧** 춘천의 지붕 대룡산

18 **최돈선의 골목이야기 ⑳** 송암동 호수 시인



18



표지 설명 **약사천 물터널** 사진 **이원일** 명예시민사진기자
약사천 물터널 구경하러 오세요. 8월 30일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하루 3~5회 운영됩니다.

CONTENTS

2021년 8월

E N J O Y

봄내를 즐기다

22 우리동네 보물찾기 동산면
25 우리동네 스케치
26 봄내컬쳐
31 이달의 책
32 춘천 문화지도 여름은 춘천이다!



22

D R E A M

봄내를 꿈꾸다

34 로컬푸드가 답이다 8월 소양강복숭아 안 먹으면 손해죠
36 2030 춘천일기 네버엔딩 춘천살이
38 신고합니다 모두의 살롱 외 3건
40 우리마을 별별공동체 ⑮ 봄내 한걸음
42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34

S H A R E

봄내를 나누다

47 생활수어를 배워봐요
48 의회소식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결사항
53 2020년 회계연도 춘천시 결산정보
54 봄내골소식
56 알림마당
61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61호
62 독자와 함께



54

봄내 | 367호(2021년 8월호)/**비매품**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21년 8월 1일 **발행인** | 춘천시 부시장 **기획** |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실
상임위원 | 김선순, 안선희 **디자인** | 임윤선 **인쇄** | 강원도민일보
봄내 편집실 | ☎033-250-3229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 bomnae1993@daum.net

춘천은 지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춘천 원도심 되살릴 '상권르네상스' 닻 올려

2025년까지 120억 투입 명동 · 중앙시장 · 지하상가 일대 활성화

명동을 비롯한 춘천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는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본격 시동에 들어간 것.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원도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입혀 젊고 신나는 스마트 상권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글 **김선순**



지하상가에서 열린 조운동도시재생뉴딜사업 〈조운플레잉〉 공연 모습_프로덕션 이리 제공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대상 지역

요즘은 코로나19로 사람이 다니지 않고 경기도 어려워 텅 빈 명동 거리를 보는 일이 짠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바로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권을 부흥시키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춘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대상지는 중앙시장, 제일시장, 명동, 새명동, 브라운5번가, 육림고개, 요선시장·상점가, 지하상가로, 2025년 11월 30일까지 국비 60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42억원 등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원도심 잠재력 살려 계층·부문별 주민 참여 이끈다

춘천 원도심 상권의 역사는 깊다. 중앙시장 70년, 요선시장·육림고개 60년, 명동 50년, 제일시장 33년, 새명동 30년, 지하상가 24년, 브라운5번가 16년이다. 이처럼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천의 원도심 상권에는 토종맛집과 오래된 점포가 많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하상가가 있다. 춘천마임축제 등 각종 축제와 공연이 늘 이어지는 문화예술 거점이며 행정기관과 언론사, 금융기관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원도심의 잠재력을 살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춘천시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단(단장 김효화)'을 꾸리고 상인단체, 유관기관,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원도심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도 마쳤다. 또 춘천문화재단,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도시공학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문화자문단'과 문화기획자, 환경활동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실행단'을 만들고 부문, 계층, 분야별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권 조성 기반 마련한다

최근 상권르네상스 사업단은 5개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승인을 받고 르네상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1차년도 사업의 목표는 스마트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명동닭갈비골목과 지하상가에는 조명 기술에 게임프로그램을 더한 디지털 아트 시스템이 들어간다. 육림극장이 있던 육림고개는 소규모 영화제가 가능한 상설문화예술행사장이 조성돼 '영화의 거리'로 꾸며진다. 브라운5번가는 꽃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포토존 등이 만들어져 '꽃의 거리'로 탄생한다.

또 스마트 상권 조성을 위한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원도심 내 7개의 상권을 대표하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한다. 중앙시장 등에 외식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교육장이 조성되며 상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컨설팅이 시작된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상권 부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컨설팅이 포함된 보조금도 지원한다.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펼쳐지면 춘천시 원도심 일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기대한다.



새명동에서 열린 〈조운플레잉〉 행사 모습 _사진 이원일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춘천의 미래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춘천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는 핵심 목표는 청소년들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시정부는 청소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공간도 만들었다.

글 **안선희** · 사진 **여성가족과**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이 늘어나 그만큼 쓰레기 양도 상당히 증가했다. 메뉴에 따라 담기는 용기나 방법이 다양해 분리배출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체에서 배달된 용기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명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다.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에 등록된 업체들이라도 시범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 외에 지역 내에서도 분리배출을 잘하는 업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가게를 '착한가게'처럼 '에코 또는 그린가게(가칭)'로 선정해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 4월 14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목거울'에서 권혜민 양(성수여자고등학교 2학년)이 제안한 내용이다. 춘천시정부는 "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목거울' 간담회

달용기 분리배출 방법을 명시하자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다. 좀 더 다듬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목소리, 거대한 울림 '청목거울'

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이름은 '청목거울'이다. '청소년의 목소리, 거대한 울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 20명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이 쏟아내는 의견은 청소년 복지 문제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문제,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등 그 분야가 넓고 다양하다. 이들은 1년 동안 정기회의,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정책토론회, 청소년 정책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청소년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정부는 중앙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목거울'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드림' 운영

시정부는 강원도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동내면 거두2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2층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카페 '드림 DREAM'을 오픈한 것.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사회 진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청소년 카페 '드림'은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휴게공간뿐 아니라 학습공간과 직업체험 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습공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도를 진행하며, 카페공간을 이용해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바리스타 체험도 할 수 있다. 휴게 및 문화공간에서는 중식과 간식,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카페 오픈 이후 매달 평균 250여명이 찾고 있다.

"꿈드림 카드 신청하세요"

시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과 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춘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 분기별 최대 15만원의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 일정을 확인한 후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꿈드림 카드는 학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비용, 서점, 영화, 공연, 운동, 여가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드림'


'드림'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



'드림'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반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ool1388.com
카카오채널	'춘천꿈드림'(아이디 검색 @ccdream)
주소	거두택지길 70 2층
문의	818-1318

외출 어려운 어르신 동행지원서비스 '호응'

지난 4월부터 시행…돌봄으로 함께 행복한 도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동행지원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4월부터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동행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7명, 지원 횟수는 73회, 지원 시간은 158시간이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는 어르신에게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업 대상자는 필수적인 외출 활동시 동행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대상자, 통합돌봄본부 퇴원환자 관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 250-4373

동내 수소충전소 준공…하루 50대 충전 가능

미래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눈앞



춘천에서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춘천시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에 더욱 다가서게 됐다.

시정부에 따르면 국 · 도비 30억원의 동내면 학곡리 수소충전소가 6월 30일 준공됐다. 이번 동내 수소충전소를 위해 시정부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동내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하며, 하루 50~60대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판매가격은 ㎏당 8,800원이다. 도내 최초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에 이어 동내 수소충전소까지 준공되면서 춘천은 명실상부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했다. 특히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 수소차 이용자가 충전을 위해 춘천을 방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과 ☎ 250-4454

선별진료소 그늘막 설치 등 혹서기 대책 마련

부채 나눠주고 야외 이동형 에어컨 등도 설치

무더운 여름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혹서기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검사 대기 구역이 야외로 햇빛에 노출되는 만큼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했다. 또 야외 이동형 에어컨 3대를 설치,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햇빛방지용 부채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근무 직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에게 아이스팩 조끼와 목걸이형 선풍기를 지급한다.

보건운영과 ☎ 250-5598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기관 확대

쓰레기 감량 목표…대대적 시민운동 전개

춘천시정부가 2024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50%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시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일회용품 없는 청사 선언과 시민 및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일상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이 실천을 넘어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시정부는 'Zero-Waste 춘천, 2450 플랜'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 희망기관과 함께 시정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 250-3115

봄내 편집실은 춘천시청의 입장, 의견을 뜻하는 표현으로 '춘천시' 대신 '춘천시정부'로 표기합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은 시민이 주인이고, 주체인 시민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치, 분권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두동 마장천 확 달라진다

250억 투입 생태하천 복원…수질 개선 등 기대

우두동 일대 마장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생태 기능이 저하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하천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하천을 친숙하고 친자연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업 구간은 우두동 두미르 아파트~사농동 752번지 일대 1.4㎞이며,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농경지 경작으로 오염되고 훼손된 마장천을 생태탐방로 설치와 유지용수 공급 등으로 최대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특히 상류부에는 수질정화와 어류서식을 위한 생태저류지를 설치하고 하류부에는 보행교, 관찰광장, 탐방데크길, 생태학습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정책과 ☎ 250-4340

춘천 대표 농특산물 가공 상품개발 완료

과일퓌레주스 등 5개 제품 기본 레시피 확립

춘천의 대표 농특산품을 활용한 농가형 가공제품 상품이 개발됐다. 제품의 기본 레시피가 정립된 만큼 향후 제품으로도 출시될 전망이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형 가공제품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를 활용해 딸기·토마토·사과 퓌레, 블루베리 젤리, 콩 · 분유 선식에 대한 기본 레시피를 확립했다. 과채혼합퓌레주스, 곡류혼합선식, 과일젤리 표준 기술화에 따른 창업 아이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특화작물을 재배 · 생산(1차) → 가공(2차) → 유통 · 관광(3차) 분야로 확대해 6차 산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농식품과 ☎ 250-4421

"약사명동 도시재생, 함께 하실래요?"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 11월까지 추진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1년 2차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공모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주민공모의 경우 사업 대상은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내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사업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규모 주민 활동으로, 공모 선정 시 최대 500만원(자부담 10% 이상 포함)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획 공모는 춘천시에 소재를 둔 단체 또는 사업지 내 주민 3인 이상의 모임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이상 포함)이다. 주민공모사업에 응모 가능한 주민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 생활기반자(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등이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44-9382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신호등 설치 나서

사고 예방 효과…투탑시티 사거리 등 8월 준공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바닥 신호등이 춘천 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횡단보도 양 끝 바닥에 설치한 LED 점등을 통해 보행신호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다.

춘천시정부는 2019년 중앙로터리 횡단보도 2개와 2020년 남춘천초교 후문, 남부초교 정문, 그린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3개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거두사거리(로데오사거리)와 도화골 사거리(강대축협사거리)에 설치했으며, 투탑시티사거리, 후평사거리(하나병원)에도 오는 8월까지 바닥 신호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닥 신호등이 준공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길을 걷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과 ☎ 250-3631

꽃과 정원의 도시…꽃향기 가득

주요 도심 · 생활권 주변 40개소에 30만본 식재



춘천시정부는 최근 주요 도심지 및 생활권 주변 40개소에 토레니아, 산파첸스, 메리골드, 백일홍 등 여름꽃 30만본을 식재했다.

지난 4월부터 심은 봄꽃인 아네모네, 비올라, 크리산세멈 등이 피어 있던 자리에 계절에 맞게 여름꽃을 심은 것.

풍물시장과 인도변 사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정원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인근 주민과 풍물시장 상인회는 물론 이곳을 찾는 외지 내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정부와 자매도시를 맺은 베트남 달랏시에서 선물한 수국 1만본은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풍물시장, 옛 중도 배터에 식재돼 시민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녹지공원과 ☎ 250-4770

스마트도서관 4곳 확대…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시청 · 시립도서관 · 남춘천역 · 청소년도서관 대상



춘천시립공공도서관의 모든 책을 스마트도서관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정부는 7월 27일부터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과 남춘천역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에서 시립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확대해 시청과 시립도서관, 남춘천역, 청소년도서관 4곳에서 시립 및 청소년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춘천시립공공도서관 정회원이며 먼저 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코너에서 도서를 신청하면 된다.

춘천시립도서관 ☎ 245-5110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 등 35억 투입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 향상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지로 선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며, 사업비는 국·도비 등 35억6,000만원이다.

15년 이상 된 보건지소 2곳과 시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지난해 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단열, 환기, 보일러, 냉난방 등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올해도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 건축된 지 10년 이상 지난 보건지소 19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내용은 단열, 창호, 냉난방기, 보일러, 조명, 환기, 등이다.

공공시설과 ☎ 250-4456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감소…백신 효과 입증

2020년 2월 이후 백신접종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분석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등의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확진자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62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은 30.8%인 50명이다. 18세 미만은 17.2%인 28명, 19~39세는 23.4%인 38명이다.

반면 2021년 코로나 확진자 374명 중 60세 이상은 73명으로 비율은 19.5%다.

60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중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것. 실제 백신 미접종 계층인 19~39세의 확진 비율은 28.8%로 다소 증가했다.

보건운영과 ☎ 250-3330

반려동물 '코 문양 · 안면' 정보 등록하세요

바이오인증 기반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생체이식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유실 · 유기 반려동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이 시범 추진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춘천을 비롯한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정부의 시범사업은 바이오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및 유기·유실방지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형태는 내장칩과 외장형 두 가지다. 이에 더해 시정부는 새로운 등록방식인 바이오인식 기반을 도입, 반려동물 보호자 편의성과 경제성, 정확성, 보안성을 높일 방침이다.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은 비문(동물 코의 문양)과 안면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동행과 ☎ 245-5787

잼(Jam)있는 영화보러 소양도서관 가자

8월 14일까지 'The Jam! 있는 영화릴레이' 개최

소양도서관에서 매일 인기 영화가 상영된다. 시립청소년도서관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The Jam! 있는 영화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인기 상영작은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행사다. 장소는 소양도서관 2층 시청각실이며, 시간은 매 회 오후 2시다.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선착순으로 소양도서관을 찾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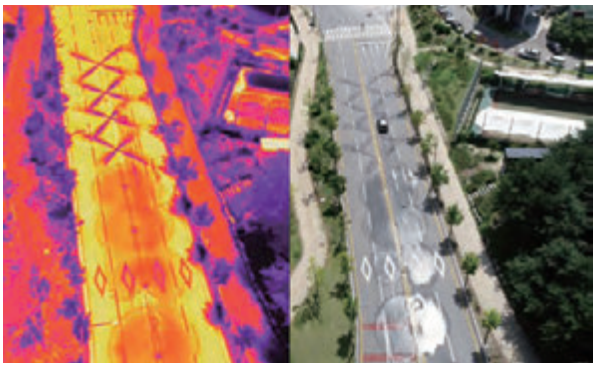
상영작은 7월 20일 '주토피아'를 시작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마틸다' '라라랜드' '코코' '모아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업' '인사이드 아웃' 등이다.

행사 진행을 위해 시립청소년도서관은 인원 제한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소양도서관 ☎ 245-5146

폭염시 자동 물 분사하는 '클린로드' 늘린다

춘천역~소양2교 등 15곳 12㎞ 운영…1일 4회 분사



춘천시정부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살포 시스템 '클린로드'를 확대 시행한다.

도로 물살포 시스템 가동 구간은 ▲롯데마트~강원지방경찰청 ▲강원도청~중앙로터리 ▲대룡공원~스무숲사거리 ▲석사대우아파트~우석중 ▲청실아파트~롯데마트 ▲강원대 동문~춘성할인마트 ▲터미널사거리~온의사거리 ▲몸짓극장~효제초교입구 사거리 ▲공지천사거리~평화공원사거리 ▲성심병원~공단오거리 ▲서부시장~춘천시청 ▲운교로터리~약사리고개 ▲춘천역~소양2교 ▲퇴계이안~퇴계우성아파트 ▲홈플러스사거리~퇴계현대2차아파트 등 15곳이며 총 12.2㎞에 이른다.

도로 물살포 시스템은 도로 중앙선 또는 차도 양쪽에 설치한 관을 통해 물을 분사, 도로 온도를 낮추는 장치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하루 4회 1시간씩 물이 자동으로 분사된다.

도로과 ☎ 250-3484

제2호 봄내림놀이터 퇴계동 지석근린공원에 추진

큰골공원 '잼잼놀이터' 이어 두 번째



어린이와 학부모, 놀이기획자가 함께 만드는 제2호 봄내림놀이터 조성사업이 디자이너 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봄내림놀이터는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다. 춘천 최초의 봄내림놀이터인 잼잼놀이터는 거두리 큰골공원에 조성했으며,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제2호 봄내림놀이터 대상지는 퇴계동 지석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노후해 정비한 필요한 공원이나 시유지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곳을 공모를 통해 추천받아 놀이터협의체 자문을 거쳐 대상지를 골랐다. 대상지 확정에 따라 제2호 봄내림놀이터 디자이너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 7~8월에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녹지공원과 ☎ 250-3151

자원봉사하고 영화관람 할인받자

롯데시네마 영화 3,000원 팝콘 2,00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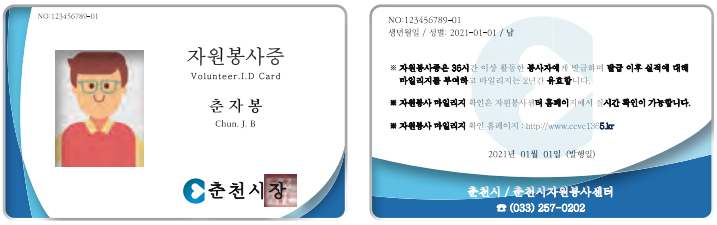
7월 1일부터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의 마일리지 사용 폭이 확대됐다.
자원봉사도 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이용해 이중의 행복을 누려보자.



자원봉사 마일리지란?

문의 **춘천시자원봉사센터** ☎257-0202

봉사실적을 포인트로 부여해 영화관람, 민원서류 발급, 관광 · 문화 · 체육시설 이용 시 포인트 차감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자원봉사증 발급은?

총 36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2019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자원봉사센터 방문 신청

■ 마일리지 부여는?

봉사시간 1분당 2포인트를 지급하는데 1포인트=1원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1시간(60분) 봉사를 하면 120포인트(120원)가 적립된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 영화관람 할인

롯데시네마 춘천(명동 브라운5번가 내)에서 마일리지 차감 없이 영화관 3,000원(제휴카드 중복할인 가능), 매점 2,000원 할인(콤보메뉴 한정)이 1일 1회 가능하다.

■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총 25종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불가)

■ 관광 · 문화 ·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소양강스카이워크, 꿈자람물정원, 삼악산, 청평사 등 14개소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시청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9개소

41년 전 청춘, 뜨거워진 눈시울



이문학 동면 장학리

아파트 우편함에 놓여있는
시정소식지 봄내 춘천 시간여행을 보면서
옛 생각에 젖어
핸드폰 갤러리를 보면서
세월의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올려봅니다.
1976년 화창한 봄날 소양강댐 담수비 앞에서
찍은 나의 풋풋한 청춘~~
2017년 겨울 담수비 앞에서의 나의 모습.
41년 세월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무릇 흘러간 청춘, 추억에 젖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춘천 시간여행에 게재하고 싶은 사진 2장과 사연(성함, 주소, 연락처 포함)을 봄내편집실(bomnae1993@daum.net)로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춘천 시간여행〉을 적어주세요.

춘천부터 원산까지 남북 강원도 그랜드 투어

1. 춘천–원산포럼

지난 6월, 춘천–원산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벌써 3회째라고 한다. 남북강원도의 수부도시 원산과 춘천을 잇기 위한 지방 단위의 남북협력 모색이다.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강원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하겠다. 춘천은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춘천대첩'으로 유명하다. 춘천에서의 결사 항전으로, 신속하게 남하하여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북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린다. 춘천에서부터 북진하여 원산까지 평화의 기운을 지핀다. 이미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개성이 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에 북쪽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 남북합작의 상품을 내다판다는 산업도시의 전략이었다. 강원도 춘천이라면 남북협력 또한 강원도 특색으로 진행해볼 만하다. 평화라는 보편가치에 생명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보태 '생명평화'의 춘천–원산포럼으로 진화시켜가면 좋을 것이다.

마침 북쪽의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으로 마식령 스키장부터 갈마지구까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아주 새로운 현상만도 아니라고 하겠다. 20세기 초부터 원산은 서해의 인천에 부럽지 않을 만큼 국제도시로 비상했다. 1916년 조선 최초의 수영 강습회가 열린 바다가 원산이었다. 1929년 만해 한용운이 원산 일대를 기행하며 남김 '명사십리'를 읽노라면, 전망 좋은 바닷가에 외국의 별장이 20여 채 줄지어서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대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레저타운이 조성된 것이다. 1930~4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의 유행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이국적인 해안 풍경을 연출했다고도 한다. 송도원 유원지, 송도원 해수욕장,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흡사 서핑족들로 가득한 LA의 베니스 비치, 롱 비치, 말리부 비치를 연상시켰다.

국제 레저도시에서 군사도시로 변한 원산

크루즈 여행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항하는 크루즈를 타고 금강산에 당도했다. 그중에서 특히 원산은 샌디에이고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동태평양 연안도시의 핫트렌드가 곧장 전파되는 서태평양의 대표적인 글로벌 레저 도시였다. 한여름 서핑부터 한겨울 스키는 물론이요, 1년 내내 스파도 즐길 수 있는 아시아의 관광 천국이었던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원산 폭격으로 기반시설이 죄다 붕괴되면서 원산은 반세기가 넘도록 삼엄한 군사 도시로 연명했다. 1945년 일본이 물러난 공백을 북방 세력, 소련이 채웠다. 행정 구역도 재편했다. 1946년 함경남도에서 강원도로 편입시킨 것이다. 강릉과 원주, 강원도의 남쪽으로 진출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복마전이 전개되는 복선이 된 것이다. 결정타는 역시 원산폭격이다. 무차별적인 B–29 폭격으로 20세기초 아메리카풍 국제도시 원산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진다. 시베리아풍 소련의 김 서린 입김이 물씬 미치는 군사도시로 전변한 것이다. 100년 전 그 찬란했던 '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의 영화를 영영 잃어버린 것이다.

2. 남북 강원도 그랜드 투어

금강산만큼 주목해야 할 산으로 자강도의 오가산도 꼽을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향로봉이 북과 남의 식물이 만나는 남북 생태계의 접경지대라면, 오가산은 유라시아와 북조선의 생태계, 대륙과 반도의 동물과 식물이 교호하는 곳이다. 세



지난 6월 13일 춘천에서 열린 '춘천–원산포럼'. 머지않아 원산에서도 열리게 될 '춘천–원산포럼'을 기대해본다.

계적인 산악인과 아웃도어 브랜드를 오가산으로 초청해서 산림 엑스포를 열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2022년에 강원도에서는 '세계 산림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러고 보면 강원도의 힘 또한 산에서 나온다. 도 면적의 8할이 온통 산이다. 그리고 그 산맥은 북과 남을 가르지 않고 유유하게 흐르고 유려하게 춤춘다. 설악산부터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산세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도 과장만은 아닐 듯하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라고 하니, 남강원도만 홀로 진행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13년 차, 사람 사이가 아직도 서먹하다며 산부터 이어가는 편이 이로울 것이다. 한반도는 애당초 북조선 인민과 남한 국민, 한민족만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피엔스 이전부터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다. 산길과 강길과 바닷길부터 먼저 잇고, 동물과 식물과 미물을 다시 연결시키고, 끝끝내는 갈라지고 쪼개졌던 사람들의 응어리진 마음도 차근차근 차차 풀어갈 일이다.

원산에서 열릴 '춘천–원산포럼'을 기대하며

원산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은 남북 뉴딜이다. 원산부터 속초까지 바닷길로, 금강부터 설악까지 산길과 숲길로, 남북 강원도 그랜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히 동해로 흘러나가는 설악과 금강이 만나야 백두대간의 허리가 곧추서고, 속초와 원산을 아울러야 구구절절 한반도의 서사도 완성된다. 서핑과 스키와 스파까지 압도적인 액티비티 경험을 제공하고, DMZ를 사이로 분단에 통일이라는 감동적인 (히)스토리까지 제시하면 원산은 20세기 초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업그레이드이기도 하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 특급 열차와 환태평양 크루즈가 만나는 환상적인 휴양도시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 대륙과 대양을 잇는 세계 일주 여행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산은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지구의 허브이자 허파가 될 수도 있다. 첨첩산중과 망망대해의 융복합으로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시티, 으뜸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원산에서 나서 알프스에서 자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일생의 과업으로 추진해봄 직하다. 머지않아 원산에서도 열리게 될 '춘천–원산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남북 강원도 그랜드 투어 프로그램을 꼭 완성해 보면 좋을 일이다.

이병한 원광대학교 HK교수. EARTH+ 대표.
꽉 막힌 골방보다는 확 트인 길에서 생각하고 하늘 아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산책주의자이다.





춘천의 지붕 대룡산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오르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은 없으리라.

– 니체



대룡산에서 바라본 삼악산 안마산 드름산 향로봉

춘천의 어머니 산

인간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에 가까워지고 싶어서지 않을까? 신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정상에 올라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곤 발아래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 이로부터 유리구슬 속의 세상을 살피는 신의 시선을 유추해 내진 않았을까. 춘천의 지붕인 대룡산에 올라서 산신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매년 1월 1일 아침이면 춘천 사람은 대룡산에 모여 시산제를 올리고 한 해의 산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산제를 올리는 까닭은 대룡산이 춘천의 주산主山이기 때문이다. 대룡산은 춘천의 지붕으로 춘천 사람의 어머니 품속 같다. 대룡산의 한 줄기가 흘러내려 소양강 곁에 자리를 잡으니 이 산이 봉의산이고 춘천의 진산鎭山이다. 대룡산이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을 낳고 따뜻하게 품고 있으니 이 때문에 대룡산을 춘천의 어머니 산이라 부른다.

대룡산은 흙으로 이루어진 육산肉山으로 산등성이가 완만하며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일단 산등성이에 오르면 완만하게 이어지는 숲길을 만나게 된다. 임도를 따라서 길게 이어진 숲길은 완만하고 넓어서 산림욕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등성이 곳곳이 산림욕장이어서 산 어디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하다.

대룡산에 전해 오는 두 가지 이야기에서 대룡산의 힘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병자호란(1636) 때 춘천 유생인 지계사池繼泗가 춘천향교 대성전에 모셔져 있던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대룡산 호성암護聖巖(바위굴)에 옮겨서 보존했다가 안전하게 다시 향교에 봉안한 이야기다. 이 일을 춘천부사 이정형李廷馨이 기록하여 '춘천지계사호성비春川池繼泗護聖碑'로 남아 있으며 이 비는 춘천향교 입구에 세워져 있다. 다른 하나는 효자 반희언 이야기로 겨울철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위해 대룡산을 헤매고 다니며 딸기를 찾아내고 병든 어머님을 위해 산삼을 얻어낸 곳이 대룡산이다. 여기에 딸기와 산삼을 찾으러 다닐 때 반희언을 태워주었던 호랑이 또한 대룡산 산신인 호랑이였다. 이처럼 대룡산은 무엇이든 내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다.



도심에서 바라본 대룡산 전경



대룡산 활공장에서 바라본 금병산 전경

공지천의 발원지

비나 눈이 쉼 없이 쏟아져 홍수가 지거나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고을의 원님은 비와 눈을 그쳐 달라는 기청제祈晴祭와 비와 눈을 내려 달라는 기우제祈雨祭나 기설제祈雪祭를 신에게 올렸다. 춘천에서 이러한 제를 올리는 첫 번째 장소가 소양강과 자양강이 만나는 지점인 용연龍淵이었고(현재는 의암호가 되어 제를 올리지 않음), 두 번째 장소가 대룡산大龍山이다. 둘 다 용龍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음양오행에 따르면 용은 방위로 동쪽, 계절로는 봄이며 비를 상징한다. 농사에 있어 물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상징적 존재다. 대룡산 여기저기에서 샘물이 솟아 사계절 물이 끊기지 않으니 대룡산은 춘천의 '샘통泉桶(천통)'이라 불릴 만하다. 춘천에서 가장 큰 지천인 공지천도 대룡산에서 발원하니 그 생명력의 근원이 이 산에 깃들어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

신의 눈으로 굽어보는 최고의 조망터

대룡산의 백미는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산과 도심을 흐르는 강이며 시가지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전망대다. 산 정상부의 전망대에 서면 춘천의 산하와 시가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삼악산 대금산 주금산 연인산 명지산 북배산 몽덕산 수리봉 화악산이, 북으로는 용화산 청평산 사명산이, 남으로는 유명산 용문산이, 동쪽으로는 가리산이 꿈틀대는 용처럼 시야에 잡힐 듯 가물거린다. 시가지 가운데 봉의산은 도심을 어루만져 주고, 소양강과 자양강은 유유히 도심을 관통하며 가슴을 시원스레 뚫어준다. 가리산 아침놀과 화악산 저녁놀은 그 가운데서도 백미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대룡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라 말한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인 겸손을 배우는 곳이리라.

허준구 문학박사. 춘천학연구소 소장.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일찍이 춘천학에 관심을 갖고 춘천의 역사와 문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천혜의 춘천 자연환경에 문화와 역사의 색을 입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진 춘천학연구소 제공)



여름이다,
나는 송암동 호수 시인을 만나러 간다

글 · 사진 **최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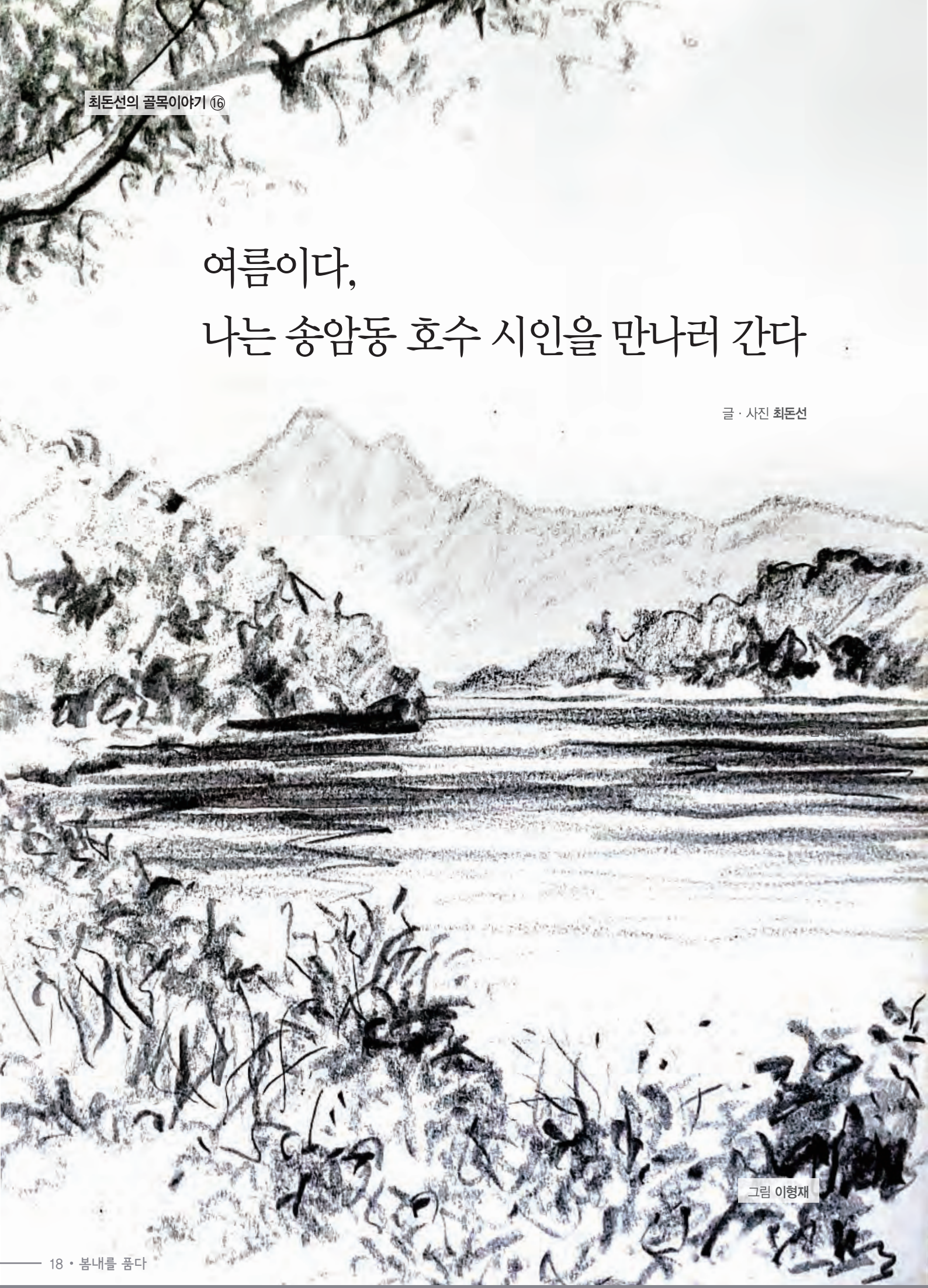


그림 **이형재**



지씨네 골목



지씨네 기와집

옛 지씨 왕국의 골목을 지나서

흐린 날엔 호수가 짙어진다. 어딘가 가야 한다. 흐린 날엔 색채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색이 번지는 날이다. 마치 서숙희의 그림처럼 흐릿한 안개가 서려 있는 형상이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인적 드문 송암동 골목을 지난다. 고양이 한 마리가 기와집 처마에 앉아있다 인기척을 듣고 골목 저쪽으로 사라진다.

오래 묵은 기와집의 기왓장에서 흘러내리는 낙숫물이 골목길을 적신다. 이 송암동에 유일하게 남은 기와집이다. 대문엔 한자로 '池○○'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이곳은 지씨네 왕국이었다. 매일신보 1930년 9월 9일 자에 지씨 왕국 탐방 기사가 났었다. 지씨가 거느린 가옥이 73호였고, 당시 모내기 장면을 찍은 사진이 크게 게재되어 있었다. 모내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맥고모자를 쓰고 하얀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지시하는 장면은 기이했다. 그 사람이 바로 지씨 왕국을 이룩한 지규문 씨였다.

이제 이 기와집 하나만이 남았다. 번영했던 지씨 왕국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새로운 집과 새로운 골목길이 생겨나 송암동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까뚜리봉 아래 호수 쪽으로 송암스포츠타운과 빙상경기장이 들어서고 카누 나루터가 생겨나 색색의 카누가 호수를 누비고 다닌다. 족구장은 늘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족구장을 지나서 호수를 끼고 목책로를 따라가노라면 호수 가운데 스카이워크가 나온다. 사람들은 까뚜리봉 허리에 놓인 이 목책로를 좋아한다. 자전거길과 걷는 길이 혼용된 이 길은 김유정 문인비와 연결되어 있다.

건너편 삼악산과 서면 덕두원 마을이 훤하게 건너다보이고, 그곳으로 통하는 의암댐 위쪽 다리로 자동차들이 지나다닌다. 그곳을 신연교라 부른다. 옛날엔 기차가 다니는 철교였다. 철로는 신연교를 건너 지금의 춘천역에 닿았다.

호수변 커피 끓이는 남자

골목을 빠져나가면 호수가 보인다. 옛날엔 두 갈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것이 의암댐을 건설하자 강줄기가 잠기고 붕어섬이 나타났다. 의암댐이 존재하는 한 이제 호수는 춘천댐과 소양댐에 둘러싸인 거대한 호수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호수는 춘천시민들에겐 그림이고 시였다. 여러 화가가 호수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중 서숙희의 그림은 시처럼 아련한 풍경뿐이다. 그 풍경처럼 오후 2시, 호수변에 연보라빛 트럭 한 대가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포장마차 트럭을 몰고 온 사람은 노시인이다. 귀밑머리 하얀 노시인은 몸매가 호리호리하다. 그가 양옆의 문을 열자 내부는 연한 핑크빛으로 온통 화사해진다. 내부는 늘 봄인데, 밖은 회색빛 하늘이다. 차 옆에 세워둔 배너엔 '커피 끓이는 남자'라고 적힌 글귀가 적적하게 서 있다. 조금씩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날은 손



고현수 시인



고현수 시인의 자작시 낭송



자작시를 건네는 고현수 시인

님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단골인 손님이 산책을 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들를지도 모른다. 그런 손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그는 호수에 나오는 것이다.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노시인은 접이식 천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비 오는 호수를 내다본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읽기 시작한다.

나는 아내의 시인

고현수.

'커피 끓이는 남자'의 이름이다. 고현수란 이름은 200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춘천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유랑인이라 부른다. 고현수란 이름이 시인이란 칭호를 얻었을 때, 그의 곁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그가 시인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으나 시력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고현수 시인의 곁을 떠났다. 2016년 어머니도 아들 시인과 하직했을 때, 고현수 시인은 고아가 된 느낌이었다. 그를 위안케 하는 것은 오로지 시를 쓰는 일뿐이었다. 문학 모임에 소리 없이 나타나 한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다 사라지는 고현수 시인을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세 권의 시집과 두 권의 산문집을 낸 고현수 시인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받았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그였다. 하지만 그의 폭넓은 독서와 깊은 사유의 시적 작업은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중 그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사랑한 사람은 아내였다.

고현수 시인의 시 '시인'은 자신의 처지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그저 나 혼자만의 시인이다. 시인은 품격이 있어야 함에 시도 당연히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어서 흙 속의 시인밖엔 안 된다"고 고현수 시인은 말한다. 이에 아내가 말한다.

흙 속의 시인/ 아내는 항상 나를 추켜세웁니다/ 당신은 흙 속의 진주/ 별과 같은 사람/ 기분은 괜찮았지만/ 나는 항상 부끄럽지요/ 나는 아내의 시인이지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고현수 시인은 시집 〈하늘 편지〉에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시로 썼다. 시인은 하늘우체국을 만들어 놓고, 구름우체부를 통해 '나를 봉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간절한 슬픔' '납골당 당신' '비 오는 저녁' 등 76편의 시는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그러함에 이 비 오는 날 어찌 아내가 그립지 않겠는가. 가랑비와 호수와 저쪽 먼 산이 숨결처럼 고현수 시인의 가슴에 닿아왔을 때, 뜻밖에도 사랑하는 시인들이 왔다. 그들은 조성림, 류기택, 조현정, 류정란 시인들이었다. 나와 아내도 그 자리에 끼었다.



비 오는 날의 시회



춘천호



호수로 가는 길

강 그늘 물길 속을 배회하던 물고기들이 비늘을 세워
은색 날개를 달고 노을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 고현수의 '북한강 일박' 부분

비 오는 날의 낭송회

고현수 시인은 손수 블랜딩한 원두를 갈아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렸다. 시인들은 저마다 한 모금씩 고현수 시인이 내린 원두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이 흐린 하늘로 퍼져갈 무렵, 류기택 시인이 가방에서 오늘 방금 나온 자신의 시집 〈사는 게 다 시지〉를 꺼냈다. 모두들 박수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곧 시회詩會가 열렸다. 류기택 시인이 시를 읽었고, 조현정 시인이 고현수 시인의 프린트된 신작 시를 읽었다.

류기택 시인은 빨간 우산을 펼쳐 조현정 시인의 시낭송을 도왔다. 조현정 시인은 오랜 투병에서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다.

고현수 시인이 자신의 신작시를 읽기 시작했다.

시인들은 호수를 떠나는 은빛 날개의 물고기를 보았다. 그 물고기는 고현수 시인의 편지를 전하는 우편배달부라고 생각했다. 서숙희의 그림처럼 호수변 집들과 나무들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일임을, 거기 모인 시인들은 모두들 알고 있었다.

먼 데 매미가 울었다.

아니 그 소리는 시인들의 가슴속에서 울려 나오는 메아리 같은 시울림이었다.

나는 매미의 울음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옛날 송암동에 지씨 왕국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호수의 시인 왕국이 있네. *

최돈선 시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춘천의 골목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시인은 골목순례를 결심했다. 골목은 춘천시민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만나는 조양JC가 내려다보이는 동산면 전경. 사진 유현식

오랜 역사 간직한 교통의 요지 **동산면**

동산면은 중앙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춘천의 동남쪽에 있다. 시내에서는 동내면을 지나 원창고개 너머 홍천 가는 길인 국도 5번을 따라가면 나오는 동네다. 군자리, 봉명리, 원창리, 조양리 등 네 개의 법정리가 있고 인구는 약 1,450명으로 북산면, 남면 다음으로 적다.

대부분 산간분지의 농촌 마을인데 2009년 봉명리에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현재 유바이오로직스, 춘천에너지, 도시가스공사 등 총 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동산면에서 가장 많이 나는 농작물은 오이와 가지이며 저농약 인증을 받은 복숭아를 지역 유통업체에 공급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춘천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동산면을 둘러보다 보면 자주 한우 목장을 만나게 된다.

동산면은 마을 이름이 범상치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군자君子리가 그렇고 봉명鳳鳴리가 그렇다. 군자리의 유래는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와 관련이 있다. 신라가 망한 후 마의태자가 이 지역을 거쳐서 갔다고 해서 '임금의 아들'이란 뜻의 군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 내려온다. 또 봉명은 '봉황이 울다'는 뜻으로 예부터 봉황이 울면 태평성대라고 했는데 봉명리는 그 이름만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입주해 있는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동산면은 산도 많다. 대룡산의 줄기로 행정구역상 동산면에 속하는 수리봉(645m), 연엽산(850m), 구절산(750m)이 있어 곳곳에 푸른 들판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장관을 연출한다. 조양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전인고등학교, 한국폴리텍Ⅲ대학 등 초·중·고·대 모든 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글 **김선순** ·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김영희, 하성재**

① 원창저수지

저수지라기보다 호수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풍광이 좋다. 인적이 많지 않아 조용히 바람 쐬러 가기 좋은 곳이다. 저수지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휴스테이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요즘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공원 녹지 경사면에 자연스레 조성된 개망초 군락지가 매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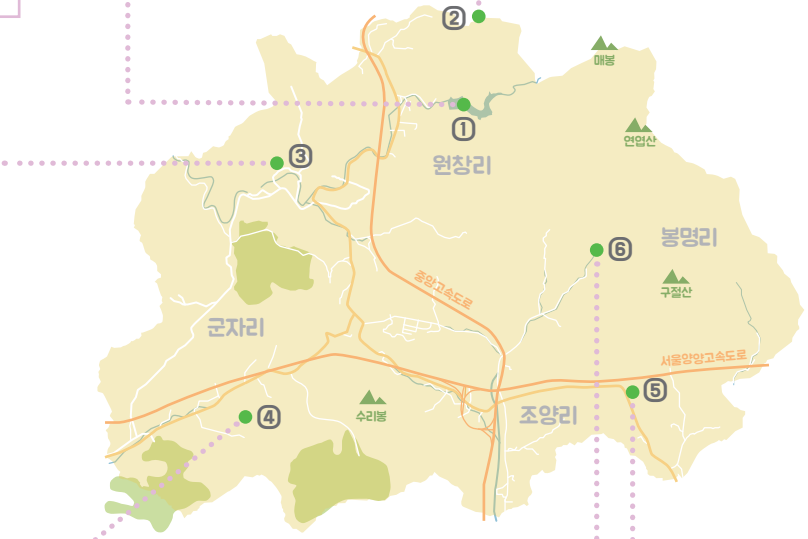


② 수리봉

원창리와 동내면 사암리의 경계에 있지만 대표 지번은 원창리 산5-1이다. 등산로 정비가 잘 돼 있고 정상에 데크도 잘 갖춰져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수리봉에서 대룡산 쪽으로 가다 보면 잣나무가 빽빽한 산림욕장이 나오는데 누워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나무 의자도 있어 힐링하기 좋다.



이곳만은 꼭!



③ 구암갤러리

원창리 마을 꼭대기에 사는 최찬희 작가의 갤러리 겸 화실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상설 전시는 하지 않고 봄 가을 전시를 하는데 올 10월에는 최찬희 개인전, 11월에는 김대영 초대전이 열린다. 갤러리 가는 길에 굴바우라는 커다란 절벽이 있는데 경관이 수려해 볼만하다.

문의 261-0232



⑥ 강원대학교 학술림 자연학습장

⑤ 모형항공기박물관

강대헌 관장이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학생들과 만들고 날리던 모형항공기, 기증받은 모형항공기 등을 컨테이너형 박물관을 만들어 수집해둔 곳이다.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엔진동력기, 헬기 등 다양한 모형항공기와 관련 사진 및 문헌, 옛날 생활용품 등이 전시돼 있다.

요금 2,000원 휴무 월요일 문의 262-5123





④ 춘천숲자연휴양림

군자리에 있는 시립 자연휴양림으로 남춘천 IC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시내에서 20분, 수도권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어 춘천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개별 욕실이 딸린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숲속의 집, 산림욕장 등이 있다. **문의 264-1156**

[편집자주] 춘천에는 25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매달 행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 기준)을 소개하면서 '우리동네'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려 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된 숲과 계곡

강원대학교 학술림 자연학습장

문의 ☎ 250-8309

동산면 봉명리에는 연엽산과 구절산 두 산이 있다. 이 두 산과 원창리 쪽 대룡산 일부가 강원대학교 소유인데 이곳에 전국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부속 학술림이 있다. 이 학술림은 천연활엽수림 등 60년 이상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에 다양한 식생이 분포돼 있어 연구 및 교육 실습 기능은 물론 자연학습과 휴양 공간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반가운 사실은 학술림의 자연탐방로가 365일 시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연엽산과 구절산 사잇길을 지나 구절산 쪽으로 꺾어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약 2시간 코스(4.5km)의 탐방로다. 계곡을 따라 걷는 가벼운 길이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큰 어려움 없이 트레킹을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심은 수령 90년 된 잣나무

다만 연구 목적의 학술림이기 때문에 산나물이나 잣 등 임산물을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간에 길을 잃는 등 조난 방지를 위해 숲해설가나 숲길등산지도사를 대동해야만 탐방을 할 수 있다. 참여 가능 인원은 100명 이하로 유치원이나 학급 단위로 현장 체험 학습하기 좋으며 개인이나 가족, 각종 모임 단위로 신청해도 된다. 방문 일주일 전에 학술림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강원대학교 학술림은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원시적 자연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심어 수령 90년 된 잣나무림은 우리나라 잣나무 인공림 중 최고령으로 학술림 탐방로의 큰 볼거리이다. 이외에 구상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 다양한 침엽수가 많지만 대부분은 활엽수림으로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고 몸에 좋은 피톤치드를 느끼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은 산림환경교육센터(봉명리 30-2번지)에서 6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취약계층과 유아·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숲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해설, 산림분야 전공체험, 목공체험, 숲길 트레킹 등이다. 참가 자격은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강원도 지역 기관·단체로 참가비는 무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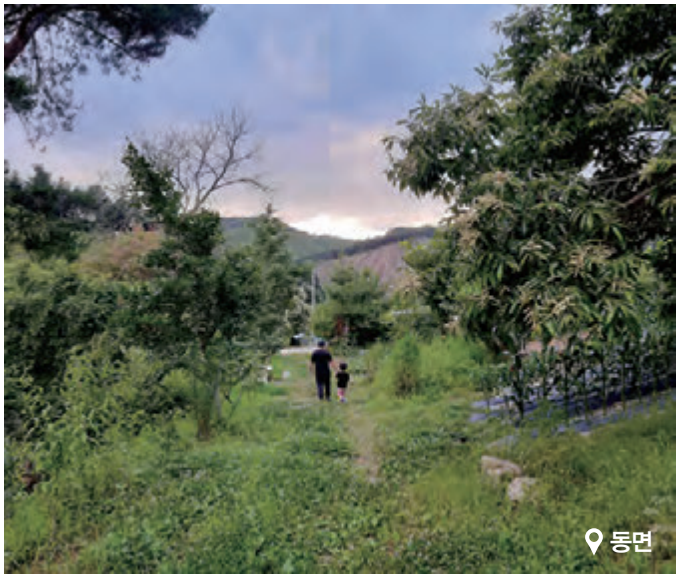
우리동네 스케치

지금 살고 있는 춘천 우리 동네를 소개시켜 주세요.
예쁜 모습이나 재미있는 모습 등 어떤 사진과 사연도 환영합니다.
게재하고 싶은 사진과 사연을 봄내편집실(bomnae1993@daum.net)로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우리동네 스케치〉를 적어주세요.



석사천에 뜬 무지개 — 최지은

시원한 소나기 후 생겨난 동심 속 무지개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석양을 마주하며 — 이상은

아름다운 아빠와 아들 그리고 자연.



집 안에 물레방아가?! — 신현관

동산면 어느 한 가정에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집에도 물레방아를 두고 싶다.



함께 여는 녹색장터 — 박소영

신사우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벼룩시장은 아이들과 함께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효자1동



새로운 문화생활 — 조성연

약사천 수변공원길에 서각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다들 한번씩 구경하러 오세요~.

공연

[춘천시립인형극단 '하얀산']
2021 예술의전당 어린이가족페스티벌 초청

'하얀산'은 국내 최초의 공립 인형극단인 춘천시립인형극단의 창단 작품이다. 연출 조현산(춘천시립인형극단 연출), 극작 경민선, 미술감독 류지연, 음악감독 김현보가 참여해 창작한 '하얀산'은 도망치고 싶은 풍진 세상에서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21 예술의전당 어린이가족페스티벌에 초청, 서울에서 관객을 만나게 된다.

일시 7. 29.(목) ~ 8. 8.(일) 오전 11시,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입장료 1층석 4만원/2층석 3만원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0~20% 할인)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티켓예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
문의 ☎02-580-1300, 070-4633-5798



[2021 춘천문화예술축제] 한여름 밤의 아리아

강원민예총 춘천지부가 주관하는 2021 춘천예술문화축제 '한여름 밤의 아리아'가 열린다. 독일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는 젊은 성악가와 국내 정상의 성악가가 함께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일시 8. 7.(토) 오후 7시30분
장소 KT&G 상상마당 야외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251-8907



[춘천시향 특별연주회 패밀리콘서트 III]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발레 갈라 콘서트

춘천시립교향악단이 3년 연속으로 발레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작품이자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고전 발레의 3대 명작으로 손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무대에 올린다. 서울발레시어터와 함께 귀족적이고 화려한 유럽풍의 무대 그리고 고난도의 기량으로 매력적인 발레를 선보인다.

일시장소 8. 14.(토) 오후 2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및 학생 50% 할인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869/5878



[춘천시립합창단] 모닝콘서트 휴가다 休歌茶

춘천시립합창단은 공연장 안을 벗어나 무대와 객석의 거리감을 줄이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소통할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한다. 지난 2016년 첫선을 보였던 이후로 매 회 전석 매진을 이뤄내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모닝콘서트 휴가다'는 공연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고, 소규모 관객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음악회라는 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일시장소 8. 18.(수) 오전 11시 춘천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입장인원 전석 50석 이내(선착순 예매)
입장료 일반 1만원
티켓예매 www.cccf.or.kr
문의 ☎259-5874

[춘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정명훈&KBS교향악단 연주회

세계적 거장 정명훈, KBS교향악단과 함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음악산책을 떠나보자. 이번 공연에는 1970년 쇼팽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개릭 올슨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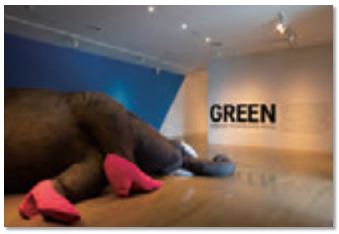
일시 8. 29.(일) 오후 5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입장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예술인 · 학생 40%, 경로 50%, 직장인 20% 할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티켓예매 www.cccf.or.kr
전화예매 및 문의 ☎259-5822~5



전시

* 코로나19 및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원미술관 기획 이정윤 개인전]
GREEN:사라지는 노래, 살아지는 노래



이정윤 작가는 입체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로서 '여행하는 코끼리' 연작으로 주로 알려져 있다. '코끼리' 형상의 입체 작품은 '증식하는 선인장'과 함께 그의 여행프로젝트(Trunk Project)의 일부이다.

이번 전시는 대규모로 개최된다. 그의 여행의 동반자인 '코끼리'와 '증식하는 선인장', '마법사 모자가 있는 상상정원', 'Silkroad'가 미술관의 환경에 맞추어 설치되고 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에 걸맞게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유리 작업도 선보인다.

일시 7. 1.(목) ~ 12. 31.(금)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이상원미술관(사북면 화악지맘길 99)
입장료 성인 8,000원 / 초 · 중 · 고생, 65세 이상 6,000원
문의 ☎255-9001

[문화공간 역 개관 1주년 기념] 예술, 일상에 스미다 展

문화공간 역 개관 1주년 기념 전인 '예술, 일상에 스미다'는 (사)민족미술인협회 춘천지부 작가 32명이 참여하는 전시다. 민미협 춘천지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역'이라는 공간에서 스치듯 전시를 만나 왔다면, 1주년을 기점으로 이제 일상에서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일시 7. 30.(금) ~ 8. 19.(목)
장소 문화공간 역(남춘천역)
문의 ☎252-0731

[이재선 인물화 展] 소회所懷

동양의 전통 초상화가 담고 있는 정신과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한 이재선 작가의 인물화전이 열린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작가의 일상적 삶에 대한 진솔한 소회所懷를 담고 있다. 다양한 공간 속에 공존하는 작가와 작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그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 속의 인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일시 8. 1.(일) ~ 31.(화)
장소 카페 느린시간 (서부대성로 446-2)
문의 ☎261-5114

[홍석제 작품전]

"동화 '플란더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가 그림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추운 겨울밤 늙은 개 파트라슈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루벤스의 그림 아래서 차갑게 죽어 가는 모습에 한없이 눈물 흘렸던 소년이 있었다. 네로가 그랬듯 그림그리기를 꿈꾸며 살아오던 소년은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다. 붓끝으로 느끼는 행복함의 결과물들을 수줍음을 이겨내고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일시 8. 1.(일) ~ 31.(화)
장소 카페줄루(춘천순환로108)
문의 ☎262-2411

[곳 다시 일상으로] 꽃피는 시절

마음 속 부유하는 사유의 사물들을 구체적 형태에 담는다.
다정하고 아득한 느낌들, 태엽을 감으면 들리는 멜로디, 해변에서 주운 조개껍데기, 어느 날의 자장가 등이 쌓여 남아 있다.
이들은 반짝이는 추억 같은 것, 막연한 그리움이 되어 현존하며 계속된다.
환상의 장면 안에 내재된 기억의 잔상들을 시각화하는 서슬기 작가의 전시가 예술소통공간 곳에서 진행된다.



일시 8. 4.(수) ~ 28.(토)
장소 예술소통공간 곳 아트라운지 로비
문의 ☎259-5834

[해바라기의 꿈 展]

이상근 이희영 최애주 작가가 '해바라기의 꿈'을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한다.
해바라기는 금빛 꽃잎을 겹겹이 단장한 채 노오란 햇살과 같이 온 천지를 밝게 빛낸다. 해바라기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긍정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 작가는 활짝 웃고 서 있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환한 그 모습을 영원히 머물게 하고, 닮고 싶어서 화폭에 옮겨 담았다고 한다.



일시 8. 4.(수) ~ 30.(월) (화요일 휴무)
장소 카페 파피루스(안마산로 21)
문의 ☎010-5367-6911

전시 · 축제

[춘천미술관 기획전시] 3인 3색 발자국 3개

춘천미술관 기획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수일(도예), 최중갑(조소), 김대형(일러스트) 작가의 그룹전이 열린다.

일시 8. 6.(금) ~ 8. 19.(목)
장소 춘천미술관 제1전시실
문의 ☎241-1856



[춘천미술관 교육사업] 문화도시, 미술을 탐하다 시즌4

춘천미술관이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그 결과물을 전시한다. 나뭇가지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가지가지해?'와 일러스트로 우리동네 지도를 만들어 보는 '뚜벅뚜벅 지도 만들기' 두 가지 프로그램이다. 공예가 박명옥 씨와 일러스트레이터 최지관 씨가 담당한다. 수업은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일시 8. 14.(토) ~ 8. 19.(목)
장소 춘천미술관 제2전시실
문의 ☎241-1856



[박미란 15회 개인전] 하울링-'심연深淵의 울부짖음 展'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참담했던 2019~2021년의 상황을 풀어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대변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한다. 미처 소리 내어 꺼내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의 멍울들을 밖으로 꺼내어 어루만져 주고 상처약을 발라 고통스러운 아픔을 달래고 새살이 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한국화 25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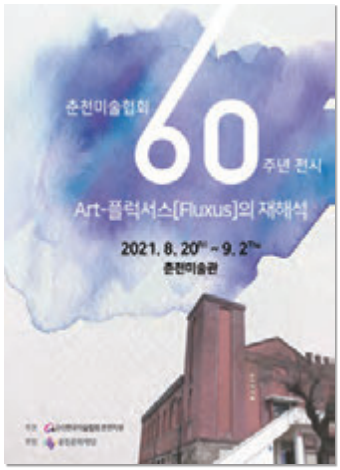
일시 8. 19.(목) ~ 8. 26.(목)
장소 문화공간 역(남춘천역)
문의 ☎010-6481-5182



[춘천미술협회 60주년 기념전시] Art-플럭서스(Fluxus)의 재해석

올해 창립 60주년 맞은 춘천미술협회의 기념전 'Art-플럭서스(Fluxus)의 재해석'이 열린다. 플럭서스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이다.
춘천미술협회가 태동한 1962년, 아티스트 백남준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삶과 예술의 조화'를 기치로 내걸고 플럭서스(Fluxus) 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춘천미술협회는 60회 기념전을 플럭서스의 재해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일시 8. 20.(금) ~ 9. 2.(목)
장소 춘천미술관 제1, 2전시실
문의 ☎241-1856



[제28회 봄내예술제]

춘천예총이 8, 9월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지역의 전문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순수 문화예술축제 '봄내예술제'를 개최한다.

시화전

춘천문인협회 회원의 시화, 수필화 50여 점이 전시된다.

일시 8. 21.(토) ~ 9. 17.(금)
장소 공지천 의암공원 산책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전문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자작시에 삽화를 그려주고 시를 낭독하는 '나도 시인이다', 손수건 염색과 스텐실로 생활용품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우당탕창 미술체험', 가족사진을 촬영해 액자를 제작해주는 '가족사진 촬영' 코너 등이 진행된다.

일시 8. 21.(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공지천 의암공원 청소년푸른쉼터
문의 ☎243-4360

축제

* 코로나19 및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 온세대 합창페스티벌]



시민참여형 합창축제의 꽃 '2021 온세대 합창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아름다운 동요들을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개막공연 '아이누리'부터 가족합당단 발표회 '가온누리', 합창페스티벌의 피날레 '온빛누리'가 8월 하순 춘천을 아름다운 하모니 속으로 안내한다.

개막공연 '아이누리'

출연진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외 7팀
일시 8. 21.(토) 오후 5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가족합창단 발표회 '가온누리'

출연진 가족합창단 22팀, 전환가족합창단 16팀
일시 8. 24.(화) ~ 27.(금) 오후 8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광장

피날레 '가온누리'

출연진 가족합창단 22팀, 전환가족합창단 16팀, 소년소녀합창단 7팀, 춘천시립합창단,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일시 8. 28.(토) 오후 8시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야외공연장
문의 ☎259-5825







[2021 토요시네파크]

영화 피크닉 '토요시네파크'가 매주 토요일 애니메이션박물관 야외상영장에서 열린다. 사전예약자는 피크닉 매트와 모기장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팝콘도 제공한다. 조창호 영화감독이 매주 영화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과 소개로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8월 21일에는 '리틀 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8. 7.(토) ~ 28.(토)
장소 애니메이션박물관 야외상영관
티켓예매 www.ccfc.or.kr/kor/

작 품	일 시	등 급
벌새	8. 7.(토) 오후 7시	15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8. 14.(토) 오후 7시	전체
리틀 포레스트	8. 21.(토) 오후 7시	
마당을 나온 암탉	8. 28.(토) 오후 7시	





축제

[2021 춘천공연예술제]



2002년 '춘천무용축제' 야외무대로 시작한 춘천아트페스티벌이 올해 20회를 맞아 '춘천공연예술제'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확장, 새롭게 출발했다. 춘천아트페스티벌은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축제로 알려질 만큼 마니아층이 형성된 춘천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축제다.
8월에는 현대무용가와 연극 중심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공연은 7, 8월에 진행하고 녹화 공연 영상은 오는 10월에 유튜브 송출을 앞두고 있다.

일　　시 7. 13.(화) ~ 8. 21.(토) / 홈 딜리버리(온라인 상영) 10월 중
장　　소 축제극장 몸짓, 춘천인형극장, 담작은 도서관
입 장 료 3만원
문의 ☎251-0545

1. 시그니처

일 시	장 소	장 르	단체명	작품명
8.12.(목) 오후 7시 30분	인형극장	현대무용	시나브로 가슴에 LDP	제로 MOB
8.13.(금) 오후 7시 30분	몸짓극장	현대무용	무브포켓 프로젝트 언플러그드바디즈	Dots Two Bodies
8.13.(금) 오후 3시	담작은도서관	어린이 / 마임	공연창작연구소 이슬길	할아버지 시계-동요
8.14.(토) 오후 3시	담작은도서관	어린이 / 영어연극	극단 잼박스	이중언어 나파무 스토리텔링쇼 '나이팅게일'
8.15.(일) 오후 6시	몸짓극장	현대무용	정록이댄스프로젝트 아트프로젝트보라	들어가지 마시오 별양
8.18.(수) 오후 7시 30분	몸짓극장	연극	그린피그	목선
8.19.(목) 오후 7시 30분				

2. 버전업

8.11.(수) 오후 7시 30분	몸짓극장	현대무용	소나무계집 임현진	방문객; 느리고 빠르게 이따금 장중하게 Jaja Nr.2
8.14.(토) 오후 6시	인형극장	현대무용	고블린파티	놀이터

3. 파인더

8.11.(수) 오후 7시 30분	몸짓극장	융복합	이주현	내가 입은 팬티와 같은 팬티를 보았다.
8.18.(수) 오후 7시 30분	인형극장	현대무용	모든 컴퍼니	피스트

4. 춘천아트페스티벌 20회 기념 특별 공연

8.20.(금) 오후 7시 30분 춘아페 재즈클럽2	인형극장	재즈	배익한 재즈 오케스트라	Jazz on Cinema
8.21.(토) 오후 6시 국악팝스테이지2	인형극장	월드뮤직	유희스카	니나노 콘서트-유희스카

미래를 위한 사소한 변화의 가치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지구가 닥친 환경 재앙을 해결하려면 70억명의 사람이 거의 사람의 모든 측면을 전면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는 말로도 들린다. 민선 7기 춘천시는 시정방향에 지속가능을 넣었다. 3년 동안 그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거듭해 왔다.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해마다 200만본의 나무를 심었고, 쓰레기 줄이기, 자가용 줄이기를 위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치에 대한 이해는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선정작이 된 〈착한 소비는 없다〉의 가치는 빛난다.

저자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일상 바꾸기를 통해 지속가능 철학을 설파하는 환경 전도사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수고로움에서 출발합니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작은 수고로움은 결코 작지 않다"고 역설한다. 제목처럼 일단 소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고 소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게 삶이다. 그래서 저자는 똑똑한 소비를 하라고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제시한다.

착한 소비는 없다

최원형 지음
자연과생태 펴냄
274쪽 | 1만3,000원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상품, 에너지, 마음, 자연 소비로 각기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있다. 가장 주된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과도한 소비를 찾아낸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7,0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티셔츠 한 장에는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말한다.

또 육식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 증가도 문제다. 문제는 이렇게 고통받는 지구가 이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산불이나 미국의 산불은 이미 연중행사가 됐다. 또 캐나다 역시 50도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치닫은 경고를 간과하지 말 것을 말한다.



그때는 사람들이



춘천학연구소 발간
171쪽 | 비매품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가 1959~88년까지 우리 사회를 비추는 다큐 사진집을 발간했다. 춘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보도한 강원일보의 소장사진과 여러 기관의 기증사진을 수집해 한 권으로 엮었다. 굵직한 사건과 사회적 이슈가 알알이 박혀 있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읽는 듯하다. 기록물들은 '주민생활'과 '학생생활' 2부로 나뉘어 있다.

오전의 살림 탐구



정이숙 지음
라이프앤페이지 펴냄
328쪽 | 1만7,000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한 결같이 정돈된 살림살이로 수많은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 살림 분야 파워 인플루언서인 작가가 정리, 요리, 청소, 레스 웨이스트까지 심플한 살림, 홀가분한 생활을 위한 180가지 신박한 살림 아이디어를 담았다. 논리적인 근거가 담긴 살림법을 통해 집안일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춘천
문화 지도
#08

여름은 춘천이다!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싸인 춘천.
여기에 푸른 강과 맑은 호수가 더해져
색다름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산에서 흐르는 시원한 계곡은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휴식처가 되고,
강과 호수의 물결에서는 카누와
수상스키 등 수상 스포츠의 짜릿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요즘, 바로 이곳,
춘천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보세요.



수상스포츠_ 남산면

32. 나인클럽수상레저 | 서천리 302-4
33. 텐파크 | 서천리 662번지
34. A.T park | 북한강변길 38
35. 블루샤크수상레저 | 방하로 1173
36. 친절한수상레저 | 방하로 800
37. MC수상레저 | 방하로 787 1
38. 연화레포츠 | 방하로 777
39. 아일레나수상레저 | 방하리 198
40. 원코리아클럽수상레저 | 방하로 579
41. 빠지에빠지다수상레저 | 방하로 567
42. 수상레저V | 방하리 386-10
43. 북한강포시즌수상레저 | 방하리 376
44. 팰리스수상레저 | 방하로 451
45. 야놀자수상레저 | 방하리 366-3
46. 샘마을관광농원 | 방하리 399번지
47. 워터파크 칸 수상레저 | 남방하로 373
48. 춘천래프팅 | 홍천강변길 34-3
49. 춘천래프팅수상레저 | 산수리 346번지

수상스포츠_ 의암호

24. 토비스수상레저 | 서면 신매리 71-1번지
25. 강원수상레저 | 사농동 61-1
26. 청춘수상레저 | 근화동 110-1
27. 중도레저 | 중도동 612-9
28. 춘천의암호물레길 | 서면 현암리 694-2번지
29. 춘천중도물레길 | 삼천동 468-2번지
30. 춘천물레길 | 스포츠타운길 113-1
31. 킹카누나루터 | 송암동 684

수상스포츠_ 남면

50. 어반수상레저 | 관천리 408
51. 피크닉수상레저 | 박암관천길 599
52. 강촌레저타운 | 박암리 543번지
53. 힐링브릿지 | 박암리 515
54. O2수상레저 | 박암리 156
55. ㈜한우리수상
56. 스타수상레저
57. 원수상레저
58. 소나미수상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놀이 장소

1.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물놀이장 | 사북면 화악지암1길 130
2. 춘천시민의숲 물놀이장 | 신북읍 천전리 산75-3
3. 육림랜드 물놀이장 | 영서로 2965
4. 춘천시청 광장 | 시청길 11
5. 춘천평화생태공원꿈자람물정원 | 소양로 77
6. 덕두원리 계곡 | 서면 덕두원리

캠핑공간

7. 집다리골자연휴양림 | 사북면 화악지암1길 130
8. 자연에머물다 | 사북면 화악지암길 186
9. 지암계곡 춘천빌리빙펜션캠핑장 | 사북면 화악지암길 600-112
10. 프라임캠핑장 | 사북면 사여골길 25
11. 용화산자연휴양림 | 사북면 사여골길 294
12. 청평사관광지 | 북산면 오봉산길 580
13. 국립춘천숲체원 | 신북읍 장본2길 331
14. 산촌생태마을 | 사북면 매산골길 8-17
15. 강원숲체험장 | 서면 납실길 107-64
16. 툇골캠핑장 | 서면 툇골길 413-38
17. 춘천캠핑월드 | 서면 툇골길 693
18. 힐링캠프 | 서면 툇골길 693-12
19. 춘천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 | 서면 박사로 770
20. 춘천숲자연휴양림 |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21. 강촌바우사랑캠핑장 | 남산면 한치로 217-30
22. 구곡폭포관광지 | 남산면 강촌리 432-37
23. 어반슬로우시티글램핑카라반 | 남면 가옹개길 108

* 다음 춘천문화지도는 '나만의 촬영 포인트'입니다. 춘천과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비추어낼 수 있는 촬영 명소를 소개해주세요.

E-mail_ bomnae1993@daum.net

Illustrated & Edited by 디자인맑음

교육원 | 박암관천길 183-27
터 | 박암관천길 93-42
| 박암관천길 93-54
레저 | 발산리 산174번지



8월 소양강복숭아 안 먹으면 손해죠~

복숭아가 수박을 제치고 여름 대표 과일로 등극했다. 한 대형마트 브랜드에서 지난해 7~8월 과일 매출을 살펴본 결과, 복숭아가 수박보다 46%나 더 팔렸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배된 복숭아는 달콤한 과즙이 줄줄 흐른다. 햇볕 듬뿍…, 8월의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이유다.

글 **안선희** · 사진 명예시민사진기자 **이원일**







춘천 신촌리에는 '복숭아 농업마이스터'가 운영하는 '즐거운 농원'이 있다. 농업마이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전문농업경영인을 말한다. 특히 복숭아 분야 마이스터는 강원도에 단 한 명뿐으로, 즐거운 농원의 선주영 대표가 유일하다.

복숭아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즐거운 농원'

7월 초 즐거운 농원을 찾았다. 오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날의 수확은 거의 끝났다.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복숭아를 따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이다. 복숭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산물이 숨을 쉬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기 전에 수확을 끝내는 편이라고 한다. 즐거운 농원에서는 요즘 새벽 5시쯤 일을 시작한다. 복숭아 크기와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둠이 가시면 수확을 시작, 늦어도 오전 10시면 수확을 끝낸다. 이후 시간에는 복숭아를 크기별로 선별, 포장하는 일을 한다.

6~9월 복숭아 출하…8월이 '꿀맛'

복숭아 종류는 2,000여 종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황도와 백도, 천도복숭아, 딱딱한 것, 물렁한 것 등 몇 종류로만 구분한다. 즐거운 농원에서는 16종류의 복숭아를 키우고 있다.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70~80일 정도 수확이 가능하도록 복숭아나무 종류를 다양화한 것이다. 선주영 · 정명주 부부 둘이서 농장 일을 해야 해서 수확을 시차를 두고 할 수 있게 선별해 심어놨다는 설명. 선 대표에게 어떤 종류가 맛있는지 물었더니 가장 맛있는 복숭아는 '종류'보다는 '시기'라고 알려줬다. 8월에 먹는 복숭아가 가장 꿀맛이라는 것.

'해를 먹는 과일' 복숭아

선 대표는 복숭아를 '해를 먹는 과일'이라고 부른다. 햇볕을 잘 받고 자란 복숭아는 당도가 높다. 특히 일교차가 큰 춘천에서 자란 복숭아는 단맛이 더 좋다. 햇볕을 잘 받아야 하지만, 너무 센 햇볕은 복숭아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는 이유다. 선 대표는 "7, 8월에 복숭아 수확이 집중돼요. 농사일을 시작하고 20여 년간 피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죠"라고 덧붙였다.

1년 내내 나무와 씨름

여름 한철 바쁠 것 같지만, 복숭아 농사는 1년을 꼬박 매달려야 한다. 9월 수확이 끝나면 내년 농사 준비가 시작된다. 수확 후 나뭇가지를 정리해주는 가을 전정을 하고 이후 10월 토양을 점검해 11월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퇴비를 준다. 12월 추위에 나무가 얼지 않게 보온재로 나무를 감싸준다. 1월 한 달 간신히 숨을 돌리면 2, 3월부터 가지치기가 다시 시작된다. 이어 4, 5월 꽃봉오리가 많이 달린 것을 솎아주는 적화摘花와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摘果 작업을 마치면 6월 봉지씌우기 작업이 이어진다. 중간중간 주변 풀도 깎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한다. 복숭아 나무는 10년 수확하면 새로운 나무로 바꿔야 한다. 묘목을 키우고, 나무를 바꿔주는 작업도 늘 병행해야 한다.

춘천시복숭아연합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선주영 대표는 "지난해 소양강 복숭아가 25만 상자가 나왔는데, 그중 70~80% 정도는 수도권으로 나갔어요. 그중 일부가 역으로 다시 춘천으로 들어와 팔리기도 하는데, 춘천 시민이 직거래로 사면 훨씬 맛있고 신선한 복숭아를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양강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즐거운 농원 동내면 금촌리 94-37 010-8793-5728

◀ 고소작업차를 타고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는 '즐거운 농원'의 선주영 대표



i_zoo_oh

네버엔딩 춘천살이

글 · 사진 **장주호**



좋아요 3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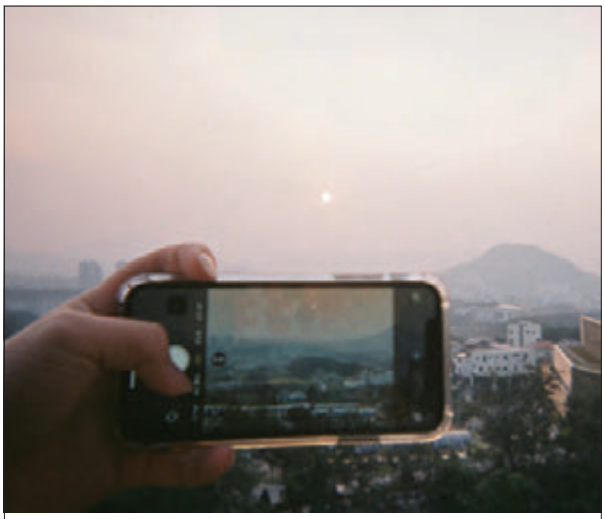
삼천동 상상마당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춘천이라니.

나로 말하자면 강원도에 연고 하나 없었던 경상도 토박이다. 어려서부터 춘천 하면 닭갈비밖에 모르던 내가 강원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춘천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사실 경상도 읍 단위에서 살았던 나에게 춘천은 너무나도 큰 도시였다. 처음 춘천 땅을 밟고 본 젊음이 가득한 강원대학교 후문의 불야성 같은 모습은 스무 살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대학교 후문을 넘어 춘천 이곳저곳을 누비는 일명 '춘천러'가 다 되었다. 더 나아가 춘천시 블로그와 수많은 홍보 SNS를 찾아다니며 춘천의 매력적인 곳을 계속 발굴하고 누리며 지인들에게도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춘천 홍보대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특이하게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경춘선이라는 좋은 교통수단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과의 이동이 너무나도 빠르고 좋지만 그만큼 주말마다 춘천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올해 문화도시로 선정된 춘천의 진가를 많은 이가 알게 된다면 분명 많은 사람이 주말에 춘천에 머물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와 같이 우리 강원대학생들이 강원대학교 후문을 넘어, 더 나아가 효자동을 넘어 춘천을 경험한다면 춘천에서 산다는 것이 일명 '갬성' 가득한 멋진 삶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최애 장소, 구봉산

내가 춘천에서 최애하는 장소는 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바로 구봉산 카페거리이다. 단지 카페거리라는 장소가 아니라 노을이 지는 시간의 구봉산이다. 한창 그 모습에 빠졌을 땐 매주 월요일마다 구봉산을 찾아갔다. 점심 식사 후 구봉산 카페에 가서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해가 뉘엿뉘



좋아요 43개

나의 최애 장소 구봉산을 필름카메라로 찍어보았다.

2030 춘천일기에 게재하고 싶은 사진과 수필 형식의 글(성함, 주소, 연락처 포함)을 봄내편집실(bomnae1993@daum.net)로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2030 춘천일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 1,955 팔로워 689 팔로잉 477

팔로잉 ⌄ 메시지 ⌄

엿 지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카페 테라스로 나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해가 딱 반대편 먼 산 뒤로 떨어지며 그 앞에 노을에 비치고 있는 넓은 춘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며 감동의 쓰나미를 느낀다. 그리고 이 풍경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춘천에서 쭉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춘천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구봉산에 데려간다. 다들 그 풍경에 넋이 나가고 또 누군가는 왜 이제서야 알려줬냐며 애정 어린 투정을 부린다. 이들과 함께 멋진 이 풍경을 보며 춘천 땅에서 함께 생을 보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이다.

환상의 직장

올해 2월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커먼즈필드에 입주한 로컬랩플로우라는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다. 사실 여름까지 취업할 마음이 없던 나였는데 심심풀이로 들어간 구직 사이트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덜컥 지원했다. 큰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면접까지 보게 되어 나름 기쁘게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합격 연락에 한동안



♥ 💬 ✈ **좋아요 75개**

코로나가 없던 2019년 가을 등산 동아리 친구들과 삼악산 용화봉에서.



♥ 💬 ✈ **좋아요 52개**

직접 찍어 본 커먼즈필드. 나의 환상의 직장 '로컬랩플로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춘천에서 살게 되어 기뻤다. 다들 서울로 가야 한다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말에 매일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아간다. 너무나도 좋은 근무환경에서 첫술에 이렇게 배부르면 다음은 어쩌나 걱정스러울 만큼 너무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도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감각 있는 직원분들을 통해 매 프로젝트마다 배우고 있다. 거기에 멋진 춘천에서의 독립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삶이다. 적어도 올 한 해는 계속 춘천에서 살 텐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춘천을 더욱이 활보하며 살고 싶다. 또 가능하다면 올해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춘천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로컬랩플로우를 통해 디자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싶은 바람이다.

장주호는?
올해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모두의 공간, 모두가 주인 모두의 살롱

춘천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갈 수 있는 시민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아르숲 바로 뒤 편에 있던 빈집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모두의 살롱'이 그곳입니다. 소규모 문화 모임이 필요한 사람(3인 이상)은 누구나 대관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문화도시예비사업으로 춘천 곳곳에서 공간과 주인의 매력이 담긴 커뮤니티가 운영되었어요. 공간 주인장과 시민들은 언제든지 방문하고 모임을 이어 갈 수 있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 코로나19가 계속되며 소규모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갈증도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모두의 살롱은 탄생하게 됐어요. 공유주방과 부엌, 강의실, 좌식공간인 마루로 구성된 본채가 있고 그 옆에는 사랑방처럼 쓰이는 별관이 있습니다. 공유주



방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당분간 식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은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강의실은 최대 12명을 수용할 수 있고, 칠판과 빔프로젝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은 제한되고요, 사용하실 때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해요. 사용은 미리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살롱에서 만나요!

효석로9번길 11-8 | 오전 10시 ~ 오후 9시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관) | 259-5432~3 | http://url.kr/36z2is

다양한 차원이 공존하는 자전거카페 차원

누구나 자전거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차원'입니다. 차원은 6월 26일 토요일, 석사동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차원이 공존하는 '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전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곳에만 오면 자전거를 사랑하게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차원 카페_커피와 디저트/ 낮 12시 30분~저녁 7시 30분
-차원 라운지_술과 간단한 안주/ 저녁 8시~밤 11시
-차원 미캐닉-자전거 정비 및 스팀세차/ 준비 중
-차원 투어-자전거 대여 및 투어 프로그램/ 준비 중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활발히 소통 중이니 팔로우 신청해주세요. 맞팔 갑니다~.



석사동 643 | 낮 12시 30분~밤 11시(월요일 휴무/일요일은 저녁 8시까지) | 070-7799-6430 | instagram.com/chawon643

이사, 개업, 취업, 귀농이나 귀촌 등 춘천에서 새롭게 시작한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게재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봄내편집실(bomnae1993@daum.net)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메일 제목에 〈신고합니다〉를 적어주세요.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다 협동조합 공유책방 본책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온 11명의 시민이 '책'이란 교집합으로 모여 협동조합 공유책방 '본책'(이사장 박제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문을 연 본책은 춘천시청 옆 옥천길에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쉼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본책 조합원들은 지혜의 숲인 책이 쉽게 버려지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일(?)을 벌여 책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 3개로 이뤄진 한옥을 있는 그대로 살려 공간을 꾸몄습니다. 책을 지역, 인문, 과학, 철학 등 주제별로 정리해 벽면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회원제(회비 1만원)로 운영되지만, 입장료 3,000원을 내



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본책의 책을 대출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책을 기증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본책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옥천길 25-1 | 오전 11시 ~ 오후 7시(일요일 휴무) | 257-6933

로컬콘텐츠 기업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불개미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지 궁금해하는데…. 우리는 늘 같이 만들어 왔어요. 팀원들과 회의 시간에 핑퐁이 잘 이뤄져서 무척 즐겁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자주 웃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수다를 많이 떨긴 하지만 노는 거 아니고요. 일 미루기 핑퐁은 더욱 아니에요."

〈불개미커뮤니케이션의 홈페이지 중에서〉

불개미커뮤니케이션은 시각디자인 회사로 시작해 카툰,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영역으로 분야를 확장해 왔습니다. 최근 온의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올해는 '강원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로컬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는 불개미를 응원해 주세요.



춘주로 92번길 25-8 1층 | 252-0095, 0098 | http://redantcomm.co.kr

우리 마을 별별공동체 ⑮
봄내 한걸음

장벽 없는 도시 위한 한 걸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휠체어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있다. 올해 처음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인 '봄내 한걸음'을 만나보자.

글 **김선순** · 사진 **공동체** 제공

호모 에렉투스. 직립 보행을 하는 인류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호모 에렉투스임에도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 사고에 의해 보행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 많다.

길을 가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음 놓고 휠체어를 탈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닐까 싶다.

휠체어 장애인이 느끼는 이런 불편함을 공감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그냥 가끔 만나서 공연도 보며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다 춘천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휠체어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



는 사업을 해보기로 했죠."

공동체 대표 안희찬 씨의 말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총 5명. 그중 유지훈 씨는 휠체어 장애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지훈 씨와 동행해서 매주 금요일 남춘천역과 춘천역 그리고 석사 3지구 아파트 쪽을 직접 다니며 장애인 이동로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횡단보도 맨홀, 휠체어 위협

휠체어 장애인 중에는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뇌성마비 등으로 손도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탈 때 조이스틱 조작이 쉽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래서 길을 가다 턱이 조금만 있어도 당황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휠체어 장애인 유지훈 씨는 "횡단도로를 건널 때 맨홀 주변이 파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휠체어 전복의 원인이 된다"며 이런 위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맨홀 주변을 지날 때 차 바퀴가 받는 충격을 생각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의 공포가 어떨지 짐작이 된다. 불편함의 문제를 너머 위협과 공포를 느낄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런 불편함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세워진 차량 돌진 방지를 위한 원기둥 모양의 경계석도 휠체어가 지나다니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영상 촬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봄내 한걸음은 자신들의 활동을 영상 촬영으로 남기기로 했다. 장애인의 불편을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춘천장애인인권영화제 때의 일입니다. 팔호광장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건너편 SK주유소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휠체어 사고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반쪽만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면 각도상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경사로가 다 있는 줄 알고 건너다 넘어진 거예요. 그 사고를 재현해서 만든 단편영화를 마침 관련 부서 국장급 되는 분이 보고 당장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3일인가 4일 만에 경사로 개선 공사가 완성됐어요."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그렇게 빨리 시정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봄내 한걸음은 매주 금요일 휠체어 장애인이 길을 다니며 겪는 불편함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춘천시 시민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에 올려 개선 제안을 하기로 했다. 또 춘천장애 인식개선 페스티벌이나 각종 영상 공모전에 출품해 사회적 파급력을 확산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뭐 거창한 것을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요구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개선 요구를 해야 세상이 좋아지겠죠. 장애인 이동로 개선은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 다리가 불편해 끌 것에 의지해 보행하는 어르신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봄내 한걸음은 앞으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방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처음에는 각종 장애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을 굳이 마을공동체까지 만들어서 움직여야 하나 고민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에서부터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봄내 한걸음이 내딛는 발걸음이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가 된 도시 춘천'을 만드는 그 길에 작은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계단만 있고 경사로는 없으면 휠체어 장애인은 어떻게 다니라는 것일까.



도시 곳곳의 턱은 휠체어 장애인을 난감하게 만든다.

“그림 · 놀이 · 인형 · 춤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곳”

통합표현예술치료사 안현옥 씨의 이웃과 함께한 인생 20년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새롭고 감사함이 깃든 능동적인 삶일 게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대체적인 현실이다.

“경제적 문제나 건강 등 삶을 힘겹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갑니다. 그런데 간혹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몸과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리듯 보통사람들에겐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 원인의 대부분은 본인조차 모르고 있던 심신의 취약성, 즉 어린 시절 겪었던 폭력이나 학대 등에서 비롯된 이른바 트라우마 trauma에서 비롯된다.

‘안현옥 몸·맘 창작소’(영서로 2299)는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안현옥 소장(56)은 “일종의 개인, 부부, 가족 문제 상담소인 셈인데 상담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말한다.



‘두 마음의 나날들’이란 주제로 4번째 개인전을 연 안현옥 씨



‘몸 · 맘 창작소’의 마음치유 워크숍 모습

“보통 심리상담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통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그치지만 저는 여기서 몇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술적 방법’을 활용해 치유를 넘어 그 사람의 삶의 소명과 비전을 함께 찾아내고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술적 방법’이란 상담 과정에서 춤, 대화, 그림, 인형, 놀이 같은 이른바 통합표현예술치료라는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동행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말로 하는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미술치료, 춤동작치료 등을 통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죠. 몸과 마음은 한 개인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장애가 있고 몸도 아픈데 병명은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의 원인을 함께 찾아내고 풀어가는 작업을 하는 셈이죠.”

‘몸 · 맘 창작소’에선 삶의 의미 상실, 무료함, 우울증, 무력감, 가정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마음 치유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최대 8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

“몸과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안전한 공간’ 역할도 합니다. 가장 평온한 휴식처여야 할 가정이 고통스러운 전쟁터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음과 몸이 집이고 고향이다’라는 그는 한림대 교수인 배우자와 함께 1997년부터 춘천과 인연을 맺었다. 가톨릭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2003년부터 호주와 춘천을 오가며 살았다.

멜버른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고, 호주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일했다.

“살아가는 일과 사람 관계가 힘들 경우, 자기 꿈 찾기와 무의식 정화를 통해 삶에 활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몸·맘 창작소는 그런 분들에게 각자의 삶에 대한 지지와 응원, 공감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창조적 공간입니다.”

김승기 명예시민기자 jms1996@naver.com

취미로 키운 달팽이가 이젠 사업이 됐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달팽이 농장 운영하는 차성호 · 성현 형제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달팽이 양식 프로그램을 보다가 취미로 몇 마리 키워본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동면 정족2리 마을회관에서 정족1길 방향으로 500여 m 방향 언덕 위 까만 차광막으로 둘러싸인 하우스 안에서 수천 마리의 달팽이를 키우며 춘천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차성호(36)·성현(35) 형제를 만났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밑으로 커다란 검은색 플라스틱 통이 겹겹이 쌓여있는데 안에는 달팽이들이 가득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

동생인 차성현 씨가 먼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부터 달팽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달팽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에 달팽이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취미를 사업으로 잇기 위해 그는 창업 후 몇 개월 동안 달팽이 양식 기술을 익히고 판로를 뚫기 위해 밤낮으로 전국을 뛰어다녀야만 했다.

자웅동체인 달팽이는 번식력이 빠르고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식성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습관찰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상용 달팽이는 5일에 한 번씩만 먹이를 줘도 되기 때문에 기르기 편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투명상자에 달팽이 두 마리를 사료와 함께 넣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 등을 다니며 홍보에 나섰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달팽이는 주로 엑기스용으로 만들어 판매되는데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일곱 배나 많고 프랑스 대표 요리인 에스카르고나 우리나라 골뱅이무침처럼 쉽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

달팽이에서 나오는 끈적하고 미끈한 뮤신이라는 점액이 세포 상처 재생능력 작용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의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해준다.

간 기능 회복, 빈혈, 고혈압 및 당뇨,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점을 SNS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 도내는 물론 가평에서까지 직접 달팽이를 구하러 온다고 했다.

농장 운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달팽이의 양이 많지 않아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담과 영업, 달팽이 관리를 혼자 하기 버거워 직장을 다니던 형 성호 씨가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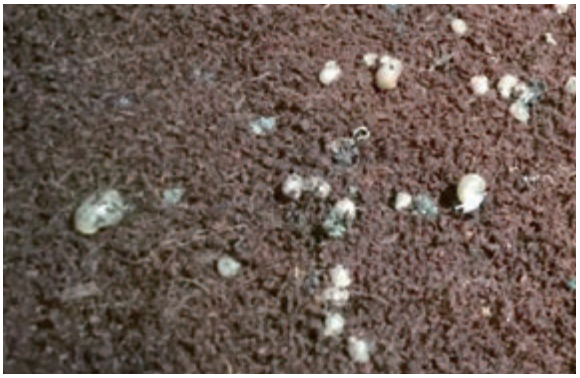
달팽이는 크게 백와, 금와, 흑와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흑와와 금와를 교배시켜 흑금와 달팽이를 만들어내는 데도 성공했다면서 현재 흑금와는 손님들이 관상용으로 가장 많이 찾는 달팽이가 됐다고 했다.

타지역에서는 달팽이 농가들이 조합을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춘천에서도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어 함께 정보도 공유하며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성목 명예시민기자 moksori888@gmail.com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는 차성현 · 차성호 형제



학습관찰용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달팽이

두 발로 달리는 행복 도시 춘천을 응원합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전거 카페 '오후'

자전거가 주는 매력에 빠져 7년 전부터 퇴계동에서 자전거 카페 '오후'를 운영하고 있는 김금식(49) 대표를 만났다.

종일 자전거를 빌려 타도 예전에 2,000원(지난해부터 5,000원)밖에 안 했던 저렴한 대여료와 시원하게 얼린 물까지 손수 챙겨주며 손님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덕에 자전거 카페 오후는 이제 춘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역 명소가 되고 있다.

자전거 카페 오후는 주택가 골목 안(퇴계로77번길 19-38)에 위치해 있는데 걸어서 몇 발자국 가면 바로 퇴계천 자전거길로 연결돼 자전거 이용객에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한편에 자전거 도로 지도와 이용안내 수칙 안내문이 걸려있고 옆으로는 손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소감을 적어놓은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현수막 아래 '두 발로 달리는 행복 도시 춘천'이란 글귀가 선명하게 들어와 그의 춘천과 자전거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자전거 카페 오후 김금식 대표



자전거 카페 오후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고객의 모습

학창시절, 해 질 무렵 오후가 주는 편안함 속에 자전거를 타고 공지천변을 달리고 있는데 그때 강물에 비친 석양의 풍경이 너무나 예뻐 지금의 자전거 카페 상호를 오후라고 지었다는 그는 "춘천 공지천변에서 오후에 자전거를 타 보면 춘천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환경 분야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춘천에 살면서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느꼈고 많은 사람이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춘천이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전거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자전거 카페를 운영해 오는 동안 자전거 대여료를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 새로운 자전거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손님들에게 유행이 지난 자전거를 대여할 때면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작년 봄부터 자전거 하루 이용료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손님의 요구에 맞는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손님의 반응도 더욱 좋아졌다고 했다.

지금껏 우리나라 여러 도시를 다녀봐도 춘천처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 곳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몇 년 전 유럽에서 온 손님이 자기 나라보다 춘천이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라면서 자신도 춘천에 살고 싶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며 주변의 아파트 가격까지도 물어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아직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시내로 가는 길도 자전거 도로처럼 잘 정비됐으면 좋겠고 전국에서 춘천이 가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타기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성목 명예시민기자 moksori888@gmail.com

“이웃과 음식 나누다 아예 반찬가게를 차렸어요”

‘학대 피해 노인 돕기 바자회’ 연 반찬가게 이순주 대표

나눔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동면 장학초등학교 근처에서 ‘엄마찬스’라는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주 대표(36 · 장학리)의 경우가 그랬다.

고객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그런데 가끔 들러 혼자 먹기엔 좀 많다 싶을 정로도 여러 종류 반찬을 사가는 게 좀 의아했다.

“근처 빌딩에서 청소 일 하는 분이었는데 이웃에 홀로 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사 간다는 것을 알았죠. 깜짝 놀랐어요. 당신도 힘들게 일해 번 돈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사정을 알게 된 그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권했다. 팔고 남은 반찬을 그냥 드릴 테니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라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늘 반찬 몇 가지를 따로 챙겨놓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이순주 씨는 지난 6월 21일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돕는 1일 바자회를 열었고 그날 판매한 수익금 등을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후원했다.

“행사 당일 아침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오후 1시쯤 준비한 반찬이 전부 팔렸어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짤막하게 행사를 알렸는데도 주문이 넘쳐났죠.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고 격려해줘서 무척 행복했어요.”

이순주 씨의 ‘엄마찬스’는 좀 색다른 반찬가게다. 젓갈이나 볶음,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을 만들어놓고 조금씩 덜어 파는 일반적인 반찬가게가 아니라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고 작은 용기에 포장해 그때그때 가격을 매겨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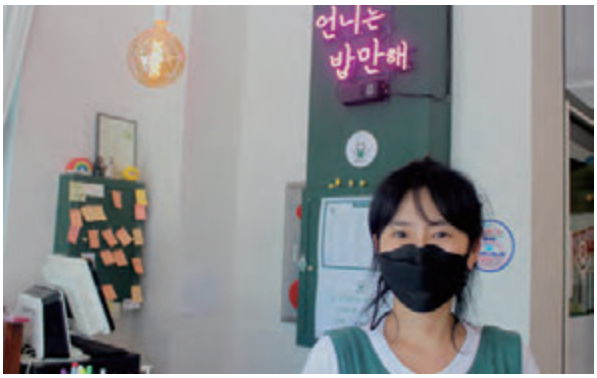
서울 출신인 그는 직업군인 남편을 따라 6년 전 춘천으로 이주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다 이웃들과 음식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감춰진 솜씨’가 드러났다.

“손이 커서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면 좀 많이 만들어요. 양이 너무 많아 이웃들과 나누곤 했는데, 그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 부담스러웠는지(웃음) ‘아예 반찬가게를 해서 팔아! 우리가 사 먹을게’ 하더라구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8월 개업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였지만, 창업은 성공적이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집밥 바람까지 불어 판매가 꾸준했다.



행사 당일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순주 대표. ‘언니는 밥만 해!’ 문구가 미소 짓게 만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신세대 사장님답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요일별 반찬메뉴와 사진도 올린다. 매일 바뀌는 반찬 메뉴는 10~12종이며 종류별로 약 50개 분량만 만든다. 주문예약이 많고 하루 만드는 양이 정해져 있어 팔고 남는 반찬이 거의 없을 정도다.

매일 색다른 반찬 10여 종을 혼자서 50인분가량 만드는 일,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더욱이 재료 손질과 포장, 사진 찍고 홍보하는 일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전업주부로 살다가 반찬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벌고, 이번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승기 명예시민기자 jms1996@naver.com





슬기로운 여름나기

명예시민사진기자 **하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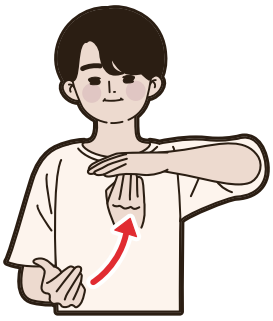
생활수어를 배워봐요

3.4%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2년부터 공공부문(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1년 현재) 3.4% → (2022 ~ 2023년) 3.6% → (2024년 ~) 3.8%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도시 춘천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10년 연속 달성 및 금년도 장애인 공무원 7명 채용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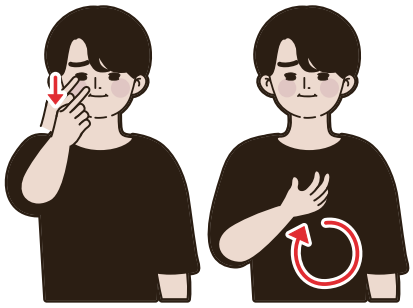


최고

동형어 : 이루다, 이룩하다



당황



슬프다

동형어 : 슬퍼하다, 슬픔

의회소식

■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의암호 선박사고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건을 의결하였다.

■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정질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 증대 방안과 수질개선에 관하여



윤채옥 의원

첫 번째, 지난해 9월 우리 시는 모든 정책 입안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예산이 평등하게 편성되도록 배분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재가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시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중증장애인의 주택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 춘천을 위해 청정 이미지가 필수적이므로 흙탕물을 비롯한 비점오염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발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 흙탕물 감소사업은 진행되고 있는지와 북한강 상류지역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여 흙탕물을 감소시킬 방법이 있는데 추진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수돗물로 사용하는 소양강댐의 취수 위치는 어디인지, 아울러 소양강댐 내 선택 취수탑 가동이 늦은 사유와 언제쯤 가동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정질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과 전반적인 SOC사업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

춘천시는 춘천 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을 계획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매칭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사를 받았지만 강원도에 알아본 결과 도비 50억원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가내시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강행하는 우를 범했고 실시설계 용역 중 사업성 재검토와 사업비 증가 예상으로 용역 중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용역 중지 사유와 기존 투입된 시민의 혈세 1억6,000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도비 지원 확보 가능성, 완공 후 운영 주체와 수익성 등 스튜디오 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전반적인 SOC사업 및 관광산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제2경춘국도 춘천 진입 IC가 입체형 교차로로 설계 반영되었는지와 춘천 진입 IC에서 신북읍 용산리로 연결되는 국도우회대체도로가 제5차 국가지방도로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현재 국지도로 승격, 국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제5차 국가지방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춘천 남이섬, 강촌권역과 가평 자라섬, 가평읍내를 포함한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사업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된 사유는 무엇이며, 남이섬 근접 방하리가 최초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빠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초록도시 춘천을 위하여



김은석 의원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보다 절박한 자세로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탄소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춘천시의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로 재비산먼지 문제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춘천시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넷째, 이재수 시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탄소 제로화 정책, 녹색도시를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의 식재 위치와 방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부족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녹색장터의 마을별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정책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추진을 강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초록도시로의 전환은 춘천의 정체성과도 부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여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춘천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 제31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정질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30 청년인구 유출과 기업 유치에 관하여



이희자 의원

첫 번째, 2030 인구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 전체 인구의 17%인 5만여 명의 대학생을 보유했음에도 2030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많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 즉 춘천시의 경제정책과 기업 유치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춘천시 2030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한 춘천시의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유치한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100명이 넘는 기업은 367명의 휴젤이 유일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인원이 3천명 미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의 지역 대학이 배출하는 인원의 절반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해마다 청년층 수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간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환경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 유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방세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유치를 통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경제와 고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의 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중일 의원

춘천시는 지난 5월 20일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 마리나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춘천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춘천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능력과 사업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최근 사업협약을 맺은 컨소시엄의 경우 레저나 관광, 리조트와 관련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선정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과 그 업체가 공모사업 입찰 시 제출한 개발계획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의 자본금,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의 추진 능력 검증이 적정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비용 및 수익, 시설별 처분계획 등 사업의 수익성 검증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준공 후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민간사업자 협약 이후 춘천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획과 달리 재원조달이나 사업협약 불이행 등의 리스크 발생 시 춘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약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슬럼가 퇴계동 9통의 정비를 제안하며



박순자 의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퇴계동 9통 1반, 2반은 60여 년이 넘는 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도심 속 슬럼이 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2021년 6월 현재 주민등록상 21세대 37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택의 균열과 파손 등 안전사고의 위험, 분뇨처리가 안 된 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한 악취, 한겨울 보일러 급유 차량 조차 드나들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4년 전 이 지역에 대한 재건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 간 의견이 달랐던 데다 이권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무산되었고, 지금은 4년 전보다 더 낡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에도 우리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춘천시 어느 한 분의 시민도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오수관로를 제대로 개설하는 등 지역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계동 9통 1반, 2반이 도심 속 슬럼가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닐고 싶은 골목길로 거듭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나 급유차량이 드나들도록 충분히 너른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빈집을 정비하고 새로운 이웃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골목에 인분의 냄새 대신 꽃향기가 퍼지도록 하루속히 지역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춘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시스템의 필요성



한중일 의원

춘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관광, 그중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춘천시 관광은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에 편중되어 있고, 춘천 내 관광 자원들 간의 상호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다면 춘천시 주요 관광지와 상권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역, 체류시간, 소비금액 등으로 세분화하여 춘천시 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춘천시 관광산업이 침체한 2020년의 경우에는 춘천시 골프장이나 자연관광 자원 등 사람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곳의 방문객은 증가한 반면, 전시관, 박물관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 있는 관광지의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트렌드가 비대면 관광을 선호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언론의 보도나 조사 결과를 춘천시 관광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관광정책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6.18.



의암호 선박사고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6.22.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21.6.22.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1.7.12.



춘천시의회는 소양취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단수 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조속히 시민 불편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2021.6.24.



춘천시의회 혁신연구회(회장 김지숙)는 정책 연구활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7.9.



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회장 이희자)는 2021년도 정책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2020회계연도 춘천시 결산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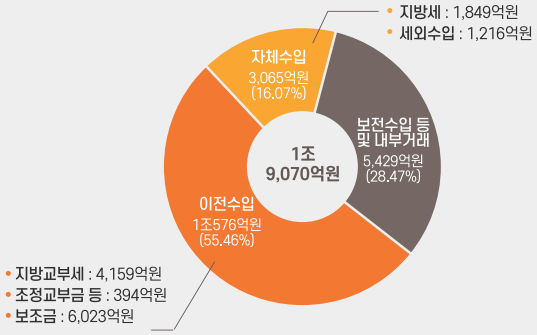
결산승인일 : 2021. 6. 22.(제310회 정례회)

한눈에 보는 세입·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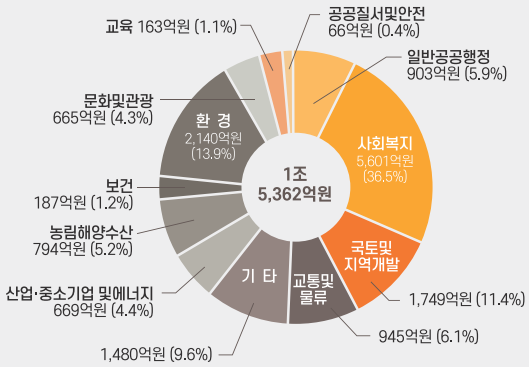
총세입·지출



항목별 세입내역



분야별 지출내역



한눈에 보는 재무제표

·주민 1인당 총자산 : **2,563만원**
·주민 1인당 총부채 : **62만원**
·주민 1인당 총수익 : **467만원**
·주민 1인당 총비용 : **450만원**

주민 1인당 총수익 및 비용은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춘천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도표, 설명 등을 곁들인 「2020회계연도 알기 쉬운 춘천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 〉 춘천시살림 〉통합(세입·세출·재무) 결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내골 소식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의 소식을 전합니다

장학금 · 성금 · 나눔후원

• **동내면 주민자치협의회·이장단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는 6월 3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세대공감 나눔릴레이로 모금된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음식 · 잔치 · 물품후원

• **효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광순)**는 초복을 맞이하여 토마토 400kg(80상자)을 관내 어려운 이웃 80명에게 전달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수)**는 6월 10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2가구에 정성껏 만든 반찬 3종(고등어조림, 짜장, 오이무침)을 전달했다.



•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6월 17일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반찬(4종류) 및 기증받은 후원물품 떡(정족1리 소재 보광사 후원)과 곰탕(전주장작불 이창훈 대표 후원)을 정성스레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었다.

• **춘천신협(이사장 이재준)**은 6월 22일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햇반 및 컵라면(200만원 상당)을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근화동 취약계층(청장년 1인가구)에 지원했다.



•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덕만)**는 6월 23일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16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과 참외를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했다.
참외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선한이웃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춘천 중앙청과에서 제공했다.

• **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단장 박근순)**에서는 6월 24일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등 홀몸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단장 양영석, 주지 진철스님, 부단장 이옥희)**은 6월 24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4가구에 정성껏 만든 반찬 3종(오징어볶음, 호박나물, 배추겉절이, 유기농쌈채소)을 전달했다.

• **천우라이온스클럽(회장 허인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월 30일 덴탈마스크 4,000매(50만원 상당)를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국제라이온스협회 남춘천라이온스클럽(회장 김영훈)**은 6월 30일 강남동 지역 봉사자로 활동 중인 강남동 자율방범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 및 동 청사 직원의 코로나19 안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마스크 각 2,000매씩 총 6,000매를 기부했다.

• **동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문교순)**는 6월 30일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감자 32kg(13상자)을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 **석사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박종기)**와 **새마을 부녀회(회장 구길회)**는 6월 30일 직접 재배한 감자 54kg(18상자)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 **후평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순희)**는 6월30일 직접 수확한 감자 28kg(14상자)을 후평1동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 전달했다.

• **효자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영숙)**는 6월 30일 직접 재배한 감자 51kg(17상자)을 관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 **산신약사암(대표 김미라)**은 7월 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양곡 300kg(10kg 30포)을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김희동)**는 7월 6일 '2021년 행복나눔 반찬지원 똑!똑!똑!'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독거어르신 40가구에 반찬(제육볶음, 고등어구이 등)을 전달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수)**는 7월 8일 초복을 맞이하여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3가구에 정성껏 만든 음식(삼계탕, 배추겉절이, 오이무침, 고추장떡, 애호박전)을 전달했다.

• **후평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재영)**는 7월 9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 **춘천시 멜론작목반연합회(회장 양승훈)**는 7월 9일 춘천시 보건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을 위한 지역 농산물 하니원 멜론 30박스를 전달했다.

봉사 · 청소 · 환경 · 정화

• **신사우동 통장협의회(회장 최규태)**는 마을생활방역단을 구성하여 6월 11일 관내 경로당 12곳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춘천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수)**는 6월 16일 25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 51명과 함께 서면 동화매실농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 **춘천시 새마을작은도서관봉사단(단장 이희순)**은 6월 21일 신사우동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회원 10명과 정리수납 전문강사 2명이 함께 정리수납 봉사를 진행했다.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지구 춘천제일라이온스(회장 이영철)**에서 6월 25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 부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셀의 집을 방문해 보일러 교체 및 설치(8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 **신사우동 마을생활방역단(단장 최규태)**은 6월 25일 경로당 12곳에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 **동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진수)**에서는 7월 5일 조손가정을 찾아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효자2동 마을방역단(단장 김영숙)**은 7월 6일 효자2동 관내 집하장, 공원 등을 돌며 방역 봉사활동을 했다.

• **후평3동 통장협의회(회장 김명화)**는 7월 5일 후평동 은하수거리 일원 및 인공폭포 주변에 여름철 시민꽃정원을 조성했다.



• **웰방역(대표 장경식)**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근화동 배터경로당 외 8곳을 을 방문해 에어컨, 선풍기 청소와 경로당 주변 방역 봉사를 추진했다.

• **효자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7월7일 주민의 볼거리와 도시의 미관을 위해 시민꽃정원사업으로 관내 곳곳에 600여 본의 꽃을 식재했다.



• **신동 한계울 경로당(회장 류인홍)**은 7월 9일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던 신동 방고개길 사거리 및 인근 도로변에 시민꽃정원 사업의 하나로 꽃길을 조성했다.

• **동내면 남 · 여의용소방대(대장 조남천, 진옥순)**는 7월 11일 관내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안심하고 마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봉사를 실시했다.

• **퇴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현섭)**는 7월 13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가정환경을 돌보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 세대를 방문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

행사 · 캠페인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은 6월 12일 홈플러스 춘천점 앞 야외광장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확대 기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하모니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 **현진에버빌3차아파트(소장 유태현)**와 **효자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영숙)**에서는 6월 18일 아이스팩을 세척 후 전통시장 등에 전달하고 재사용을 위한 아이스팩 수거함도 설치했다.



• **신사우동 주민자치회(회장 신영길)**는 내년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하여 6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탁토론회(와글와글 이야기 마당)를 개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후평2동 주민자치회(회장 윤용수)**에서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원탁토론회 '219 꽃밭 토론회'를 6월 2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알림마당

춘천시민에게 유용한 교육, 복지, 행사 정보를 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춘천시 통계

가구
127,689세대 +203

인구
286,178명 +1

출생아 119명
(2021년 누적출생아 751명)

65세 이상
51,596명 +150

자동차
140,300대 +168
(전기자동차 1,237대 포함)

2021년 6월 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수치임)

교육·강좌

■ 춘천시립도서관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문의 ☎ 245-5109, 5069

< 8월 인문학 강좌 >

일시 매주 목요일 19시~21시
대상 성인 100명
방법 온라인 강좌(Zoom 활용)
주제 위대한 역사가, 역사서와의 만남
강사 김영수 (역사학자,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 작가)
일정 8. 5. 사마천, 최후의 10년
8. 12. '사기'의 명장면–술자리로 재구성한〈고조본기〉
8. 19. '사기'의 명문 감상
8. 26. 사성의 고향 한성시 탐방

< 청소년 한국사 교실 >

일시 8. 9.(월) ~ 8. 13.(금) 10:00~12:00
대상 관내 중학생 15명
장소 시립도서관
주제 흐름과 사건 중심의 청소년 한국사 교실
강사 박재형(한국사 강사)

■ 춘천시립도서관

< 엄마의 말 공부 >

일시 8. 7.(토) 10:00~12:00
대상 초·중등 학부모 150명
방법 온라인 강좌(Zoom 활용)
주제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말의 힘 엄마의 말공부
강사 이임숙(작가, 심리상담사, 의사소통 전문가)
일정 도서 '엄마의 말 공부',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 외 다수

< 8월 장난감으로 배우는 영어 >

일시 8. 10.(화), 8. 24(화) 16:00~17:00
대상 유아(6,7세) 10명
방법 온라인 강좌 (Zoom 활용)
주제 장난감으로 영어 배우기
강사 벤칼듄 켄자
일정 8.10. 내 생일은 몇 월인가요?(My Birthday)
8.24. 어떤 동물일까요?(Animal Sound)

< 8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Day >

일시 8. 28.(토) 10:00~12:00(저학년) /
15:00~17:00(고학년)
대상 관내 초등가족 각 15팀
방법 온라인 강좌 (Zoom 활용)
주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칼림바 여행
강사 오혜경 (칼림바 강사, 한국칼림바협회 학술이사)

< 8월 모두의 레고, 레츠고! >

일시 8. 7.(토), 8. 21.(토) 10:00~11:00
대상 유아(6,7세) 10명
방법 온라인 강좌 (Zoom 활용)
주제 동화 속 레고 장난감 만들기
강사 최시영 (공예 강사)
일정 8. 7. 레고 씨티 스포츠카 만들기
8. 21. 레고 프렌즈 숲속의 폭포 만들기

< 부모성장 아카데미 >

일시 8. 28.(토) 11:00~12:00
대상 성인(양육자 · 임산부) 20명
방법 온라인 강좌(Zoom 활용)
주제 도서관에서 태교하자–스트링아트 만들기
강사 이소영(레크리에이션 강사, 스칸디오감 강원지사 대표)

■ 동내도서관

< 영어 그림책 속 이야기 여행-어린이 방학특강 >

일시 8. 3.(화), 8. 5.(목), 8. 10.(화), 8. 12.(목) 총 4회 / 14:00~16:00 – 2학년 14:00~15:00, 3학년 15:00~16:00
대상 초등학교 2, 3학년(학년별 10명)
방법 온라인 강좌(영상회의 플랫폼 활용)
내용 유명한 영어그림책을 재미있게 영어로 읽어보기
접수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7. 27. 화요일 10:00~)
문의 ☎ 245-5126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여름방학 독서교실 >

일시 8. 3.(화)~8. 6.(금) 총4회 5학년 10:00~11:00, 6학년 11:00~12:00
대상 초등학교 5, 6학년(학년별 10명)
방법 온라인 강좌(영상회의 플랫폼 활용)
내용 책 읽기 및 도서연계 책놀이 활동
접수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7.27. 화요일 10:00~)
문의 ☎ 245-5126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재료 꾸러미 도서관 방문수령

< 탈출! 청소년 여름나기 공예교실-청소년 방학특강 >

일시 8. 7.(토), 8. 14.(토) 총2회 / 10:00~12:00
대상 중학생(10명)
방법 온라인 강좌(영상회의 플랫폼 활용)
내용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 속 소품 만들기
접수 홈페이지 → 문화마당 → 문화행사 신청 (7.30. 금요일 10:00~)
문의 ☎ 245-5126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재료 꾸러미 도서관 방문수령

■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8. 9.(월)~8. 27.(금) 〈추가모집 8. 30.~9. 3.〉
모집대상 일반성인 누구나
개강일 9. 6.(월)부터 과목별 개강
교육과정 전문자격, 음악, 미술, 일반교양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교육문의 ☎ 250-7189,7191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le.kangwon.ac.kr) 참고

■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8. 9.(월)~8. 27.(금)
교육기간 9. 6.(월)부터(세부일정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lifepartner.hsc.ac.kr/) 접수 및 방문 접수
문의 ☎ 240-9493

■ 근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집기간 관내 8. 17.~ 8. 19. / 관외 8. 19. ~ 8. 20.
운영기간 9~11월 (3개월)
모집대상 만 60세 이상
수강료 무료
선발방법 추첨 실시
문의 ☎ 245-5628 / 250-3615

프로그램	정원	운영일정	장소
건강체조(A)	10	월, 수 10:00~11:00	실외/붓돌공원 (주민센터 앞)
건강체조(B)	10	화, 목 10:00~11:00	실외/붓돌공원 (주민센터 앞)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운영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사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기간 관내 7. 26.~7. 28. / 관외 7. 29.~7. 30.
접수방법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방문접수
교육기간 8. 1. ~ 12. 31. (5개월간)
문의 ☎ 245-5859

* 수강료 접수당일 현금선납 / 교재 및 실습재료비 본인부담

프로그램	정원	운영일정	장소	수강료
요가	20	수, 금 9:30~11:00	다목적실	5만원
라인댄스	20	월, 수 13:00~14:30	다목적실	5만원
통기타	20	화, 목 13:00~15:00	다목적실	7만5,000원
탁구초급A	10	월, 수 10:00~12:00	탁구실	7만5,000원
탁구초급B	10	월, 수 14:00~16:00	탁구실	7만5,000원
탁구중급A	10	화, 목 10:00~12:00	탁구실	7만5,000원
탁구중급B	10	화, 목 14:00~16:00	탁구실	7만5,000원

* 개인도구 사용 필수(요가매트, 탁구채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완료자에 한해 1인1과목 등록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운영 중단 및 폐강될 수 있음

모집·신청

■ 국가기간전략훈련 교육생 모집(수강료 무료)

과정 ERP생산정보사무원양성(회계, 인사, 물류, 생산)
대상 실업자, 근로자, 사업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내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회계, 인사, 물류, 생산
교육기간 2021. 9. 1.~2022. 1. 27.
기타 훈련장려금 지급(매월 최대 30만원)
신청 전화, 방문
문의 ☎263-9979, 264-9979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 마음건강 증진 상담 참여자 모집 >

진행일정 8. 12.(목) 14:00~16:00
상담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감
상담장소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층 상담실
상담대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감 호소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문의 ☎ 241-5600

< 아름다운 성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 모집 >

진행일정 9. 6.(월) 14:00~15:00
교육내용 건강한 성의 개념, 시대에 따른 성인식 변화, 성폭력 종류 및 처벌법
교육장소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층 201호
교육대상 성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만 60세이상 어르신
문의 ☎ 241-5600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 생활금융 교육 참여자 모집 >

진행일정 8. 19.(목) 오후 14:00~16:00
교육내용 예금자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상식과 관련하여 대면 교육 진행
교육장소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층 201호
교육대상 생활금융 교육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문의사항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 250-7238

■ 춘천여성민우회

1. '아는 만큼 보이는 디지털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단 모집

대상 성범죄 관련 재판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도민(여성)
조건 관련 교육과 회의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수당 지급
신청 춘천여성민우회 ☎ 255-5557 / 010-2558-8496

2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아는 만큼 보이는 디지털 성폭력'

목적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함
대상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교사, 학부모 (강원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7~10월
문의 춘천여성민우회 ☎ 255-5557

3. 달빛여자축구단 단원 상시 모집

대상 축구를 해보고 싶은 춘천시민(여성)
장소 강원대학교 대운동장
시간 매주 일요일 19:00
신청 춘천여성민우회 ☎ 255-5557 / 010-2558-8496

■ 농업일자리 탐색교육(4일 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목적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연계
교육내용 농업·농촌 이론교육(3일) 및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및 현장실습(1일)
모집기간 7. 27.(화) ~ 30.(금)
교육시간 2시간(4일)
교육장소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01호
신청방법 농정원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 참고 (www.returnfarm.com:444)
문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 250-7238

■ 2021년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대상 만 15세 ~ 69세 구직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제공
-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비 지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제공
- 1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제공
- 2단계 : 일경험, 복지 서비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훈련비 최대 300만~500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58.4만원 지원
- 3단계 :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 최대 6만원 별도 지원

비용 무료
기간 연중 수시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256-8819 (효자로 7-1, 2층)

■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이용자 모집

모집일시 상시모집
장소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언어 및 미술치료를 원하는 영유아
이용방법 발달재활, 심리지원, 모두사랑카드, 일반이용가능
이용금액 회기당 3만원
내용

언어치료 : 발음, 조음말, 언어 이해/언어표현, 언어능력증진을 위한 활동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한 감정, 내면세계 표현 /기분의 이완과 감정, 스트레스 완화 활동

문의 ☎ 242-0051

■ 2021년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과정	내용
2021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 교육기간 : 9. 6.~11. 18. (월,수,금 19:00~22:00) ▶ 모집기한 : ~8. 20.(금), 1차 서류심사 후 선발 ▶ 본인부담금 : 10만원
2021년 국비지원 새일직업교육 훈련 노인케어전문가 과정	▶ 교육기간 : 9. 6.~11. 12. (45일,180시간/ 9:30~13:30) ▶ 모집기간 : 7. 12.(월)~8. 20.(금) ▶ 본인부담금 : 10만원 ▶ 대 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내용 : 인지활동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이론+실기)
여성 취업코칭 프로그램 (집단상담)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수시 ▶ 교육내용 : 본인탐색 (성격유형, 역량검사),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재취업준비 지원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15명 이내) ▶ 참 가 비 : 전액 지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8월 프로그램	▶ 접수기간 : 수시모집 ▶교육내용:컴퓨터(ITQ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등) 관련 교육, 캘리그라피 자격증 과정,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 등 ▶ 강원여성경력이음카드 사용 가능

■ 2021 수어통역사양성프로그램 초급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9. 7.(화) ~ 12. 2.(화) (주2회)
장소 강원도농아인협회춘천시지회 교육장 (춘천시 삭주로 3 별관동 2층, 옛 춘여고)
교육시간 오전반 : 매주 화/목요일 10:00~11:30
저녁반 : 매주 화/목요일 19:00~20:30
접수기간 8. 2.(월) ~ 8. 31.(화)
교육비 5만원 (교재비 포함)
모집인원 15명(선착순)
문의 강원도농아인협회 춘천시지회 ☎ 252-9056

* 교육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평생학습관 하반기 온라인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8. 9.(월) ~ 8. 16.(월)
교육기간 8. 23.(월)~12. 11.(토) / 16주(4개월)
과목및인원 39개 과목, 780명(과목별 20명, 춘천시민 대상)
수강료 무료 (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ZOOM / 네이버 밴드)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1인 2과목에 한함)
문의 ☎ 245-5191

* 하반기 오프라인(대면) 정기교육 추후 별도 모집 및 홍보(8. 23.~8. 30.모집예정)
* 기타 세부내용은 춘천시청 또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고

건강·복지

■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안내

대상 중독(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과 그 가족
운영시간 평일 9:00~ 18:00
위치 삭주로 84 수인빌딩 3층
사업내용 1)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2) 중독교육 및 예방홍보
3) 병원의뢰 및 지역사회연계 위기개입
홈페이지 http://www.alcoholfree.or.kr
문의 ☎ 255-3482

■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검진기간 6 ~ 8월
검진장소 해당 지역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전국16개)
검진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등과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방법 희망하는 지부에 검진 전에 사전예약 전화 신청
필수준비물 신분증,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등) 또는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또는 유·가족 확인 안되는 경우) 유공자증과 유·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검진항목 소변·혈액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관절염, 흉부엑스레이, 골밀도, 안압, 안저, 구강 등(내시경 등 제외)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강원지부 ☎ 260-0800

■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복지지원과(☎250-337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희망키움통장(Ⅰ) 모집 안내 (7차)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3년 만기)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 지급
모집기간 8. 2.(월) ~ 8.19.(목) / * 연 10회 모집 예정

2.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안내 (3차)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3년 만기) 매월 10만원 (본인저축) +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모집기간 8. 2.(월) ~ 8. 19.(목) / * 연 4회 모집 예정

행정·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강원지역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창작자 ※ 선착순 무료지원
지원내용 계약서 해석, 독점계약 등 불공정계약 강요, 부당한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정보, 지식재산권 등 법률자문
지원접수 11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법률자문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245-6528,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 254-6580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해 드립니다.

기간 7. 19. ~ 9. 30.
대상 동물등록(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및 변경신고(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접수
변경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문의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 245-5349

* 춘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 말소 등록 안내

폐차말소
대상: 압류·저당·체납 해결 후 신청 가능
수수료: 면허세(1만5,000원), 증지(1,000원)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앞뒤 번호판 사진, 신분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차령초과말소
대상: 압류·저당·체납 있어도 신청 가능, 승용(11년 이상), 승합(10년 이상), 화물(10~12년 이상) 신청 가능
수수료: 면허세(1만5,000원), 증지(1,000원)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폐차장입고확인서, 앞뒤 번호판 사진, 신분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통사항
위임 시: 개인(위임장+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속인 신분증, 상속 포기서(도장, 신분증 사본)

과태료
선청 기간(폐차 후 1개월) 지연: 10일 이내 5만원
1일 경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과태료 50만원

문의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245-5237

■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일시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소 노후 차단기, 등기구 등 교체
대상 6 ~ 8월
내용 각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 250-3679

■ 춘천시 대중교통 지역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6. 21.~ 상시(활동기간 7~12월)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주 2회 이상 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하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밴드) 사용 가능한 자
혜택 월 1만원 교통비 지원
자원봉사 실적 인정
우수활동가 시장 표창
접수방법 춘천시 대중교통과 방문 접수
문의 춘천시 대중교통과 ☎ 250-3049

축제·행사

■ 광복절 기념 무궁화 묘목 나눔 행사

일시 8. 14.(토), 10:00~12:00
장소 소양로 역사공원 내 7층석탑 앞
내용 무궁화 3,000주 나눔 및 문화예술단 공연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문의 강원선우회 ☎ 010-9235-7513

■ 제16회 소양강처녀 가요제

춘천지역의 재능 있는 신인가수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는 '제16회 소양강처녀 가요제'를 앞두고 예선 접수와 심사가 열립니다.



접수기간 8. 9.(월) ~ 8. 27.(금)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kbt2005@hanmail.net) 접수
심사일시 8. 28.(토) 10:00 ~ 17:00
심사장소 춘천아트플라자 갤러리(춘천예술마당 내)
본선경연 10. 2.(토) 공지천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문의 ☎ 010-8255-0261

김경철 님께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세요

86세 김경철(가명) 씨는 26년 전 부인을 잃고 자녀 2명과는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홀로 살아왔으며, 10여 년간 집에 쌓아 놓은 쓰레기는 전문인력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김경철 씨가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 후 이웃주민들도 청소봉사와 방문봉사를 통하여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 상 자	김경철(가명, 만 86)
모금기간	2021. 8. 1.~ 8. 31.(1개월)
목표금액	300만원(주거환경개선)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입금방법	후원○○○(후원자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4015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60호 모금 결과

지난 7월, 60번째 대상자 김건승 님 (가명 · 20)에게 주거수리비 5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매일 식사는 잘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춘천시정부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로 알려주세요.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 참여 안내

-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이란?**
  매월 천원의 작은 금액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시민 운동입니다.
- **후원금액은? 1인 매월 1,000원부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인천원 나눔_ 춘천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춘천인천원나눔_춘천시

※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와 함께

삼행시 당선작

박미선 후평동

문열어 환영합니다
소확행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춘천
각양각색의 관광지로 여행 오세요

박준혁 퇴계동

문을 열면 춘천이 한눈에 들어오던 곳
소실된 문소각이 빨리 복원되어 다시
각광받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용미영 후평동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춘천!
소망해요, 다시 누릴 그날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조금 만 더 힘내요!

독자 삼행시를 보내주세요

8월호 독자 삼행시의 주제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로 삼행시를 지어서 이름, 주소(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봄내편집실 이메일(bomnae1993@daum.net)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열 분에게 춘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7월호(366호) 독자 삼행시 이벤트 당첨자는 강정숙, 박미선, 김나경, 박준혁, 연제열, 권오경, 이수자, 최미영, 용미영, 강희수 님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 주세요"

열린유치원 무지개반 담임 **유혜인**



열린유치원 무지개반 아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춘천에 대해 한 달동안 활동하고 마무리하면서 춘천시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 나눴어요.

춘천시에는 육림랜드, 애니메이션박물관, 인형극장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시설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룡들이 있는 공룡박물관,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 박물관,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레고 박물관까지 다양한 박물관이 생겨난다면 우리 친구들도 더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춘천!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어주세요.

우편 24264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내 봄내편집실 **이메일** bomnae1993@daum.net

소식지를 읽고 난 후의 소감이나 춘천시에 바라는 점, 소개하고 싶은 춘천의 명소, 함께 벌이고 싶은 캠페인 등 다양한 이야기(400자 이내)를 이름,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세요. 〈독자와 함께〉에 사연이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편집 사정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친구해요

전현경 온의동

독서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도서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가면 신착도서를 포함하여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다 갖추어져 있고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은 책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대신 구입해서 빌려주는 훌륭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새 책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지요.

윈스턴 처칠은 책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읽고 싶지 않다면 쳐다보고 쓰다듬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펼치면 끝까지 정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어슬렁거리며 이 책 저 책 팔랑거리는 것만으로도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카페 가듯이 가볍게 도서관 산책은 어떨까요?

봄내 366호를 읽고

김기서 서울시 영등포구

봄내를 보면 춘천에 살던 아련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다시금 피어오릅니다. 춘천 사람이 아니어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춘천은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친근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춘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봄내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역사가 어떠한지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는 어디인지 춘천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마음 편안히 춘천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춘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식 등 춘천의 다채로운 면모를 계속 담아 주세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 가는 시민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춘천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엄마와 손잡고 갔던 국립춘천박물관

류우창 삼천동

2002년. 춘천에 그럴듯한 박물관이 생겼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국립춘천박물관.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에 놀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2002년생인 국립춘천박물관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10만 년 전의 이야기부터 다양한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까지 알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봄내를 통해 들으니 괜히 뿌듯합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박물관에 가봐야겠습니다.

'가벼운 춘천여행' 편을 읽고

전기홍 경기도 김포시

모든 내용이 훌륭했지만 그중 '가춘여와 함께 걸으실래요?' 편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소식지를 항상 즐겨 읽곤 합니다. 이번 호 가벼운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춘여라는 모임이 존경스럽네요. 유명한 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반하고 감탄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춘천의 매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합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자세이고 주변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박미희 대표님의 명언에 가슴이 저려오네요. 저 역시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멀리서 항상 춘천을 응원하리라 약속 드립니다.

춘천시

우리의 역사!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연·전시·체험>

01 항일음악회

8. 14.(토) 18:00 / 의암공원

1부 주제: 독립의 노래 항일음악
- 풍물놀이
- 춘천의병아리랑, 안사람 의병가
- 안중근 옥중가 시낭송
- 대한혼가, 북간도 아리랑 등

2부 주제: 민족의 노래 아리랑
- 광복군 아리랑, 기쁨의 아리랑
- 홀로아리랑, 아리랑목동 등

02 호국 애국정신 서예 쓰기

8. 9.(토)~8. 29.(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14:00 / 의암공원
- 항일정신, 독립운동에 관한 글을 시민 및 관광객들과 써보는 행사

8. 13.(금) ~ 8. 16.(목) / 춘천문화원 의암전시관(1층)
- 서예공모작품 전시

03 종이로 만드는 독립운동 이야기

10. 1.(금) ~10. 10.(일) / 춘천시청
-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예술, 대형 종이 공작물 전시

10. 2.(토) ~ 10. 3.(일) 11:00 / 춘천시립도서관
- 춘천 비밀결사단 '상록회' 이야기를 종이 공작물로 공연
- 종이 공작물 체험

04 독립운동가 윤희순 이야기 (인형극)

10. 25.(월) ~ 11. 20.(토) 중 4회 / 미정(유치원/초등학교 방문)
- 독립운동가 윤희순 일대기를 인형극으로 공연

<행사>

01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학술 토론회

8. 13.(금) 14:00 / 춘천시청 대회의실
- 시민참여 역사바로세우기 학술 세미나

사전행사
- 광복군 연극·태극기공 시연, 어록·독립선언문 낭독
- 광복이야기 전시, 독립군 포토존 운영

02 광복 제76주년 기념 거리 공연

8. 15.(일) 14:00 / 의암공원 · 명동
- 거리 행진과 공연 시연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및 행사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